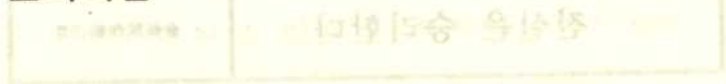


머리글



유난히 길게 느껴졌던 장마철이 가고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예고라도 하듯이 태양이 뜨겁게 작열하는 여름입니다. 이두웠던 석구름이 걷히고 태양이 빛을 발해도 이 시대를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마음의 먹구름은 걷히질 않습니다. 그것은 양심과 정의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차갑고 어두운 감옥속에 현정권과 악법에 의하여 갇혀져 있기때문입니다.

그 양심과 정의의 사람들중에서 우리는 한 젊은이를 기억합니다. 강기훈. 지난 6월 24일 평동성당에서 현정권에 의하여 유서대필 자살방조라는 어찌 구니 없는 조작수사에 의한 죄명을 덮어쓰고 수사관들에 의해 끌려가며 "저는 믿습니다. 진실이 승리할것을" 이라고 담담하게 외쳤던 젊은이를.

우리는 강기훈씨의 진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강기훈씨의 승리를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승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현 정권과 검찰이 강기훈씨가 고 김기설열사의 유서를 대필하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유일한 증거로 제시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할 CCA(아시아 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의 필적감정서를 확보하였습니다. 같이 보이는 글자 몇개만을 골라 유서와 강기훈씨의 필적이 동일필적이라고 주장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과 강기훈씨와 고 김기설열사의 문서전체를 비교, 분석하여 필획, 글씨의 경사도, 획의 방향등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유서의 필체와 고 김기설열사의 필체가 동일하다고 감정한 CCA 측 일본 감정가의 필적감정중 어느것이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가 하는 문제는 양측의 감정서를 비교해보면 명확해집니다.

강기훈씨 자신의 진정동기를 밝히는 글

"이제 현 정권과 검찰의 음모와 조작에 대하여 강기훈씨의 양심과 진실을 지키기 위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강기훈씨의 법정투쟁이 8월 28일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에서 물러설수는 없습니다. 아니 강기훈씨가 이기는 싸움이며 이기고 있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법정에서 현정권과 검찰의 무릎을 꿇리고 양심과 진실의 승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현 정권과 검찰은 강기훈씨의 진실과 무죄를 입증하는 자료들이 속속 제출되지 당황하여 혐노맹권연혁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 추가기소하였습니다. 강기훈씨가 기소될 당시 검찰은 추가기소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였으나 이를 반복하여 추가기소한 것은 바로 강기훈씨의 유서대필 자살방조혐의가 현 정권과 검찰에 의하여 조작된 것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강기훈 후원회는 현정권과 검찰의 이러한 작태에 대하여 분노와 울분을 금할수 없습니다. 한 무고한 젊은이의 양심과 인권을 자신들의 더러운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짓밟아 놓고 자신들의 조작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자 또 다시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을 덮어씌우는 저들의 행태를 보며 저들이 과연 존재할만한 정권이냐는 질문을 되짚게 됩니다.

이제 현 정권과 검찰의 음모와 조작에 대하여 강기훈씨의 양심과 진실을 지키기 위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강기훈씨의 법정투쟁이 8월 28일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에서 물러설수는 없습니다. 아니 강기훈씨가 이기는 싸움이며 이기고 있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법정에서 현정권과 검찰의 무릎을 꿇리고 양심과 진실의 승리를 선포해야합니다. 그럼으로서 저들에 의하여 짓밟혔던 우리들의 명예와 긍지, 자존심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법정투쟁에 참가하여 정의와 양심, 진실이 불의와 위선, 거짓의 탈을 벗기는

역사의 증인이 되어야합니다

강기훈 후원회는 현 정권과 검찰의 음모를 날낫이 밝혀내고 강기훈씨의 양심과 진실의 승리를 반드시 가져오겠다고 다짐하며 정의와 진실, 양심을 믿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강기훈은 지금

### 보복적인 치안본부 재수사에 시달려

강기훈 씨는 8월 8일부터 유서대필사건과는 무관한 이적단체 가입, 이적표현물 소지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치안본부 대공3과는 강기훈 씨의 가택수색시 나온 혁노명 관련 서류를 그 증거물로 들고 있는데, 강기훈 씨의 말에 따르면 그 서류는 85년 민정당 연수원 겸거농성으로 복역할 때 알게 된 사람과의 개인적 만남에서 받은 것으로 혁노명에 가입한 사실은 없다고 한다. 그 서류를 준 사람 역시 치안본부의 조사에서 문건 전달과 가입을 권유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강기훈 씨가 혁노명 조직원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강기훈 씨를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가입,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추가기소한 것이다.

### 치안본부 수사중 계속된 면회불허

치안본부 수사가 진행된 8월 8일부터 21일까지 강기훈 씨에게는 계속 면회가 불허되었다. 구치소에서는 "지금 조사중이다" "검찰청으로 갔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었지만, 사실은 조사중이 아닐 때도 이유없이 면회를 불허한 것이다. 이로 인해서 가족은 물론 변호인단 접견도 금지되었는데, 그동안 강기훈 씨와 변호인단 사이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임박한 재판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도 구치소에서는 전민련 관계자들과의 면회는 무조건 차단하고 있다.

### 편지조차 전달하지 않아

강기훈 씨는 그동안 전민련 동지들과 이영미 씨 등에게 편지를 보냈으나, 수신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구치소측에서는 전민련에 보낸 편지는 수신인 이름이 단체이며 영문과 기호가 들어 있다는 이유로, 이영미 씨에게 보낸 편지는 내용의 상당부분이 사건 수사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이유로 불허했다고 밝혔다. 또한 계속된 수사와 검찰 출두 등으로 강기훈 씨는 이발할 기회조차 없어, 머리가 계속되는 이 여름에 머리카락이 길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다.

### 그래도 의연한 우리의 강기훈씨

강기훈 씨는 현재 6명의 목격사범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그들의 부탁을 받아 일어 학습을 지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족과의 면회에서 일어사건 등을 넣어줄 것을 부탁하며 "저 요즘 굉장히 바빠요"라며 웃는 강기훈 씨. 재판을 앞두고 여러가지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그는 참일꾼의 의연함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영치금을 넣어 주신 권고조 윤영규 선생과 신민당 장영달 선생, 자신의 신작소설 '빛'을 영치해 주신 윤정모 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 ■강기훈씨 재판이 시작됩니다.

지난 6월 24일 강기훈씨가 "검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고 밝히면서 자진출두한지 두달 남짓만에 첫 공판일정이 잡혔다.

8월 28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방법원 417호 대법정. 재판부는 합의25부(재판장 노원욱 판사) 담당검사는 신상규로 알려졌다. 또한 강기훈씨를 변호하게 될 변호인단은 황인철, 홍성우, 김창국, 유현석 변호사 등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주심 변호인은 김창국, 이석태, 박연철 변호사 3인이다.

### 재판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

가장 큰 쟁점으로 예상되는 것은 역시 유서대필 여부이다. 이에 대한 검찰의 가장 큰 무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의 공방과정에서 이미 허위감정임이 드러났고 무엇보다도 일본 NCC인권위의 의뢰로 이루어진 일본인 오니시 요시이씨의 필적감정결과가 이를 국제적으로 입증한 셈이다.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는 검찰이 임무영씨를 또다른 대필혐의자로 지목하여 조사한데서 드러났다는피 검찰자신도 믿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 재판준비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변호인단에 따르면 강기훈씨 재판 준비는 이미 밝혀진 진실을 토대로 검찰주장의 허구성을 반박할 객관적 자료들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며 앞으로의 재판진행과정에서 밝힐 결정적인 증거자료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 대한 재판과정이 단지 검찰주장을 반박하고 강기훈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번 사건이 5월 정국의 위기상황을 벗어나고자 노경권이 낯 조해년 의도적인 조작사건임을 밝혀내고 조작의 책임자를 양심과 진실의 위력으로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상식이 이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것이다.

"내가 강기훈씨를 변호하게 된 것은 변호사로서의 당연한 임무에서라기 보다는 김기실씨의 영혼이 나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립니다"라는 이석태변호사의 말에서 우리는 다시한번 진실과 양심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본다.







# 강기훈부장을 주각 적망하리

「유서대필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금되어 있는 강기훈씨를 온 국민의 투쟁으로 구출합시다.

국민 여러분!

노태우정권은 무고한 사람을 두번씩이나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기훈씨에 대한 18일간의 이르른 벌실 강입수사를 통해서도 자살병조의 혐의는 물론 검찰이 주장하는 유서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대필해 주었는지 조작 밝혀 내지 못하는 등 「유서대필 사건」은 이미 노태우정권의 위기를 넘기기 위한 철저한 조작극임을 명천하여 화

의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태우정권과 그 하수인인 검찰은 진실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머리숙여 사과하지는 커녕 자신들의 조작극이 법정에서 다시 한번 폭로될 것을 두려워하여 무고한 젊은 양심인 강기훈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21일 추가 기소하는 파멸적인 반행을 저질렀습니다.

강기훈씨에 대한 추가 기소의 내용은 이미 오래 전에 윤석영 의병의 보안사 사찰복으로 「조작사건」으로 판명된 『혁명적 노동자동맹』의

유서대필 사건 첫째면이 8월28일(수) 오전 10시 서울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모두 재판에 참여하여 진실을 밝혀 냅시다.



재정보고 ( 7.22-8.22 )

수입	지출
629,690원	회보 130,000원 회보 발송비 30,000원 컴퓨터 디스켓 7,000원 컴퓨터용지 5,000원 컴퓨터플러그 13,000원 사무실 비용 50,000원 상근자 식대 52,500원 활동비 100,000원
잔액 242,190원	총액 387,500원

- 회비를 보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면관계로 회비를 보내주신 여러분의 성함을 일일이 기재하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비와 성금을 보내주실 때는 다음 구좌를 이용해주시오.

• 구좌번호 : 신한은행 : 13101-2046606  
상업은행 : 119-05-119332  
국민은행 : 003-01-0570-152  
농협 : 084-01-132153  
• 예금주 : 강기훈

재판장고

강기훈씨의 1심공판이 아래와 같이 열립니다. 강기훈씨의 양심과 진실을 믿는 모든 분은 꼭 참석하시어 강기훈씨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1991년 8월 28일 오전 10시  
장소 : 서울형사지법 417호 대법정(서초동소계)



전신의 『해명의 불꽃』이라는 「이적단체」에 가입했다는 혐의입니다. 그러나 『해명의 불꽃』은 해체하여 없어진 지 오래고, 『해노맹』이라는 조직 또한 이미 해체된 상태에서 과거 친구의 부탁으로 문건을 보관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 변호와 변호사 접견이 금지된 채로 진행된 강압수사와 추가 기소는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보복조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즉 유서대필 사건의 공소유지가 불투명해지면서 이명계는 강기훈 씨의 이미지가 심추시켜 유리판권을 받게하려는 치졸한 보복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5월 정권의 폭력성에 대한 국민적 항쟁의 분광에 찬물을 끼얹기 위해 남조해 낸 「유서대필」이라는 최대의 조작극에 맞서 강기훈 동지와 함께 오로지 진실과 양심을 무기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결연히 싸워가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의 재판과정을 통해 소위 유서대필 사건이 정권적 차원의 일대 조작극임을 밝히고, 조작 관련자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함으로써 그들을 도덕과 양심의 이름으로 단죄할 것이며, 그리하여 양심세력에게 전심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신의 고택과 진실, 부도덕한 정권을 증언하기 위해 자진출두하는 전민권 총무부장 강기훈, 이제 우리는 부릅뜬 눈으로 진실을 드러내어 반인륜적 공적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는 노정권을 법정에 세울 것이다.

###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전국 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 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기독교사회운동연합  
민화민주·통일불교운동협의회  
(총연)

민주교사회운동연합  
민화민주통일중앙회의  
서울민족민주운동협의회  
인천지역민족민주운동연합  
경기북부민족민주운동연합  
(총연)

경기남부민족민주운동연합  
강원민족민주운동연합  
충북민족민주운동연합  
대전·충남민족민주운동연합  
전북민족민주운동연합  
경주·전남민주연합

대구·경북민족민주운동연합  
경남민족민주운동연합  
부산민족민주운동연합  
제주민족민주운동연합

### 사법부에게!

노정권과 검찰은 애초부터 「유서대필」과 「자살방조」라는 터무니 없는 가설을 세워놓고 이를 짜맞추기 위해 온갖 불법적인 음모를 동원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소위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민족민주운동의 도덕성을 결코 담당하게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밝힌다는 차원에서 업무일지, 수첩 등 관련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는 등 공경수사에 협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제출된 증거자료를 조작적으로 은폐·조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참고인들에 대한 불법연행, 장시간 구금, 불법적 수배, 심지어 참고인 조사 후 구속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으며, 홍상은양에 대한 두달 이상의 불법감금과 강기훈씨와 강기훈씨에 대한 면회, 변호인 접견 제한, 잠 안재우기고 문, 명심 강요수사 등으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사법부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공정재판의 의지를 보이지 않을 때, 검찰은 또 온갖 불법적 행각을 통해 진실을 호도하고 유서대필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를 서슴치 않을 것입니다. 전민련은 이번 재판의 진행과정을 온 국민과 더불어 지켜 볼 것이고, 만에 하나라도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사법부 역시 권력의 시너라는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 『유서대필』 사건 그 진실이 국제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서대필 공방이 강기훈의 구속으로 일단락된 지난 7월8일 유서대필이라는 검찰의 후안무치한 주장을 뒤집은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일본에서 제출되었다.

한국 기독교인권위원회(KKIC)가 아시아기독교 교회협의회를 통해 일본의 지방한 필적 강경사인 오니시 요시오씨에게 강기훈의 유서와 강기훈씨의 필적을 보내 강점을 의뢰한 결과 "두 필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판정이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 강경가의 필적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여지 주장을 뽐내고 있다.

그러나 오니시씨는 48년부터 도쿄 국립박물관에서 고문서 강점을 담당하다 79년 정년 퇴직한 '문서 강점의 장인'이다. 그는 일본어 뿐만 아니라 미군 필적사건 때에는 영어 강점도 한 적이 있다.

오니씨는 "지금까지 50여 년간 강점을 해 왔지만 이번처럼 강점자료가 풍부한 적은 드물다"고 밝히고 "50년간 쌓아온 장인기질로 분명히 밝혀지지만 이번 강점결과와는 완전히 무관하다"고 잘라 말하고 있다. 그는 또 "한국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왜 강기훈씨의 필적과 강기훈씨의 유서 필적이 같다고 강제한 결과가 이해가 안간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강점과정을 밝히지 않는 채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의혹을 사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오니시씨는 "재판이 시작되어 변호인단의 초청이 있을 경우, 본래의 법정에서 서겠다"고 말하고 있다. 오니시씨는 이번 강점을 위해 9종류의 강점자료를 가지고 약 2주동안 수백번의 강점을 거쳤다.



### 김기철씨의 필적과 김기철씨의 필적 감정 결과

1. 'ㅎ' 에 있어서 (-), ( ), ( ), ( ) 등과 같이 5가지로 분류된다. 김기철씨의 필적에서는 ( ) 52개, ( ) 18개가 혼용되어 있어 김기철씨의 필적은 두가지로 분류된다. 그러나 김기철씨는 187개 두 ( )으로 쓰여져 있어 두사람의 필적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2. 'ㄹ' 의 경우 김기철씨의 필적에서는 모두 제2회의 필선을 생략하고 제3회의 필선을 올리는 필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김기철씨의 필적에서는 84개 모두가 제2회의 필선을 가릴하는 필법이 사용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3. 김기철씨가 쓴 자료 중 'ㅏ', 'ㅑ' 문자의 제2,3획을 수평으로 긋는 필법을 사용하고, 그 밖에 끝부분을 밑으로 향해 내리긋는 필법도 병용하고 있으며 종필을 가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로 김기철씨는 2번(7개) 'ㅏ', 'ㅑ' 문자의 제2,3획에서 끝을림의 필법을 사용하여 종필을 빼쳐 올리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한다.
4. 또한 'ㄹ' 'ㄱ' 의 필법도 전혀 다르다는 결론이 나왔다.

... 32년 8월 14일 ...  
 ... 유서대필 ...  
 ... 김기철씨 ...  
 ... 필적 감정 ...  
 ... 결과 ...



오나시 모시오세 가 집행한 김기철씨 유서와 김기철씨 육용필자 사본 오나시씨는 '유'의 제1획 사선 필법을 띠고 1의 필법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주장한다. 그는 김씨와 유서의 필적(오나시) 김기철씨의 필적(오나시)을 비교하여 필적(오나시)을 수백번 반복했다고 밝혔다.

### 국민 여러분!

이상에서 보듯이 이미 유서대필이라는 억지주장은 국제적으로 허위임이 밝혀졌습니다. 검찰이 유일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감정은 위외같은 구체적 자료 제시도 없이 또 그것도 내부공무원인 문서분석실장 한명이 단 하루만에 감정 결과를 밝혔다는 데에 그 공정성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 ▶ 부안부처한 유서대필 조작과 억지 구속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감기호를 즉각 석방하라!
- ▶ 국민인류적 유서대필 조작의 주범 경구영 검찰총장, 강신욱 부장검사, 신상규 검사장 즉각 파면, 구속하라!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허위감정 책임자인 문서감정실장을 즉각 구속, 처벌하라!
- ▶ 수사법무는 공정 재판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명백하게 밝혀라!
- ▶ 조국대우정권은 민주세력에 대한 광란적인 탄압을 중지하고 1,700여명의 양심수들을 즉각 석방하라!

### 진실과 양심의 승리를 위해

### 국민여러분 함께 움직여 주십시오

1. 8월28일부터 시작되는 유서대필사건의 공판에 적극 참여하십시오.
  2. 이 선전물을 돌려 읽고 유서대필 조작극의 허구성을 주위에 널리 알립니다.
  3.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금되어 있는 김기철씨에게 민피와 격려 편지를 통해 진실의 승리에 대한 믿음과 힘을 줍시다.
- 주소 : 경기도 의왕시 포인동 산18-1, 우편번호(437-120) 수백61번 김기호

# 유서대필 날조조작 사건

## 재판투쟁 속보 1호



28일 오전 김기철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련 총무부장 김기호씨가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 |          |              |               |               |
|----------|--------------|---------------|---------------|
| 전국사단총연합회 | 민주교사회        | 경기남부민족민주운동연합  | 대구·경북민족민주운동연합 |
| 전국농민총연합회 | 민주노동자연맹총연맹   | 강원도민족민주운동연합   | 경남민족민주운동연합    |
| 전국학생총연합회 | 서울민족민주운동연합   | 충청도민족민주운동연합   | 제주도민족민주운동연합   |
| 전국노동총연합회 | 인천민족민주운동연합   | 대전·충남민족민주운동연합 | 전라남도민족민주운동연합  |
| 전국여성총연합회 | 경기북부민족민주운동연합 | 전북민족민주운동연합    | 전라북도민족민주운동연합  |
| 전국학생총연합회 |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 광주·전남민족민주운동연합 |               |



법률

민족민주운동연구소 소장 채만수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온, 우리 모두가 재판 정황의 증거에 의해서 확신하는 것처럼 소위 '유서대필'은 검찰의 날조(INVENTION)이다. 논리적으로도 타살이거나 자살자가 문명자가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유서가 '대필'될 수 있다는 말인가!!!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온, 우리 모두가 재판의 정황과 증거에 의해서 확신하는 것처럼 소위 '유서대필'은 날조이다"라고 말하는 데 대해서 시비를 하고 싶을 지 모른다. 그러나, 약간은 구차하지만, 다음과 같은 생생한 역사적 사실 하나만 생각해 보자. 1959년에 조봉암씨는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극사법'으로 '처형'되었다. 그러나 불과 며칠전에도 이 사회의 '지도층 인사' 수백명에 의해서 그에 대한 '추모식'이 거행되었다. 그리고 그 추모인사들 속에는 집권 민자당의 상임고문 윤길중도 있었다. 그렇다면 그 '추모인사들' 특히 윤길중씨는 (당시 '공범관계' 있다는 개인적 의리와 전통적 윤리 때문에) 적어도 정치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혹은 용납되어서는 안되는 '추모식'을 거행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당시 '대법원'의 '처형판결'이 '단순한 기술적 오만' 이어서 그러한 행사가 마지못해 '묵인'될 뿐이라는 것인가? 누구나 아는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언론은 많은 경우 상업주의적 목적도 겹쳐서, '대법원'의 그 '판결'이 "정치적"인 것이었음을 누차 밝혀왔고, 그에 대한 실득력 있는 반론은 제시 되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가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의 하나이다.

강기훈씨, 서준식씨 등등 검찰이 정치적 목적에서 날조한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된 사람들은 재판 없이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를 날조한 검사들, 그 날조를 사주하고 지시한 사람들이 있게 해야 한다. 이 사건을 '검찰의 권위, 도덕성'의 문제나 '전민련 등 재야의 도덕성'의 문제나 하고 바라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검찰이 보는 것처럼 엄연히 '범죄의 문제'이고, 검찰도 같은 자로 재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기훈씨에게 추가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서준식씨에게 적용하고 있는 '집시법'과 특히 '보안관찰법'. 그것들은 그 법률들의 민주성 여부를 떠나서도 재판 상황에 비추어 검찰의 비밀함을 은폐하기 위한, 그리고 판사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구차하기 이를데 없는 추가적 예비조치들에 불과한 것이다.

유서대필 혐의로 구속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 동지의 1심 첫 공판이 지난 8월 28일 오전 10시 서울 형사지법 417호 대법정 약 20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지법 합의2부 노민욱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려 검찰 직립 신문과 변호인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서울지법 공안 2부 안종택 검사, 서울지법 강력부 신상규, 송명석 검사 등 검사 4명과 유현석, 김창국, 박용일, 조영형, 이석태, 박연철, 장기욱 변호사 등 10여명의 변호인과 강기훈동지의 어머니 권태명씨, 신창균 전민련 상임의장, 지선공동의장, 언론노련 권영길위원장 등이 지켜 보는 가운데 시작되었다.

10시 10분 경 강기훈 동지가 입장하였고, 강기훈 동지의 모두진술에 앞서 김창국 변호사는 "범죄 일시, 장소를 특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에도 검찰은 공소장에 유서대필의 일시, 장소를 '4월 27일 부터 5월8일 사이 서울 이하 불상지'로 막연히 기재해 강기훈씨로 하여금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다"면서 "이런 공소는 기각돼야 마땅하다"며 공소사실 중 자살방조부분의 경우 일시 장소를 명기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상의 기본적 사항마저도 기재하지 못한 점을 들어 공소기각이 당연함을 주장하였다.

이어 20여분에 걸친 모두진술에서 강기훈 동지는 '나는 절대로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은 강경대 군 치사사건 이후 그양민 국민들의 반정부 투쟁 분위기를 가라 앉히고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려 했던 정치적 음해 사건이며 본인은 그 희생양'이라고 말했다. 강기훈 동지는 또 '검찰 수사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이 영터리라는 사실을 딱히 알 수 있었다,며 그 증거로 전민련에서 검찰에 제출한 사회국 업무일지가 자신의 필적과 동일하다는 국과수의 감정결과가 나왔으나 이 업무일지는 사회국 소속의 세명의 부장이 함께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한 검찰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제시한 혁노명 관련자 2명이 쓴 메모지와 혁노명 의사록을 본인의 필적으로 간주하고 그 글씨를 확대해 유서글씨와 비교해 놓은 사진 철 100여장을 만들어 놓았으나 결국 다른 사람의 글씨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국과수는 서로 다른 5명의 글씨를 같다고 판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글씨가 본인의 글씨라고 감정했다는 것이다.

강기훈 동지는 또 검찰 수사과정서 고문은 당하지 않았으나 잠안제우기 고문자, 손커검, 모욕적인 연사, 건강한 수사관이 자신을 둘러싸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등 항거불능의 반노이로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김기설 동지의 여자친구인 홍성은씨에 대해 '너와 성은이는 그렇고 그런 사이였는데 기설이한테 성은이를 소개시켜 주면서 관계를 끊어버렸기에 홍성은이가 내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이 아니냐, 는 등 인간적으로 견딜 수 없는 수모를 안겨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강기훈 동지는 '시민으로써 검찰의 출두요구에 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 했으나 이 사건 수사가 나를 희생양으로 삼아 민주세력의 민주화운동을 잠재우려는 정치적 의도가 변하게 보였기 때문에 출두시기를 늦췄다,고 말했다. 강기훈 동지는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으로 많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명예회복, 특히 김기설 동지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며 모두진술을 끝마쳤다.

검찰은 4시간 동안 진행된 직립신문에서 강기훈 동지에게 자살방조 부분에 대해 이



매한 정황증거를 중심으로 시종 유도신문과 반복질문을 계속했다.

\* 김기철동지 분신 전날 밤 김기철동지의 여자친구인 홍성은앙으로 부터 "내일 김기철 동지에게 무슨일이 생기면 김동지 아버지에게 연락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서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끊었다는 홍성은앙의 진술.

\* 김기철동지 분신 뒤 홍성은앙 및 단국대 후배 김진수씨 등과 잇달아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부분.

\* 업무일지, 수첩 등을 조작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강기훈 동지는 이에 대해 업무일지, 수첩을 조작하거나 '대책회의'를 가진 적은 없고 김동지 분신 전날 밤 홍성은앙으로 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에는 며칠전 술자리에서 홍성은 앙을 늦게 귀가 시킨 일로 인해 미안하다는 말을 한 것이며 김동지에게 무슨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말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계속된 강기훈 동지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인 허노명 관련 신문에서는 이번 사건의 본안인 유서대필 부분에서 75여항을 신문한 반면, 허노명 사건 관련 부분에서는 90여 문항을 신문하는 등 본말이 전도된 심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허노명 관련부분을 신문하면서 처음에는 허노명의 이념과 노선, 그리고 가입 여부를 묻다가 결론에 해당하는 뒷부분 20여 문항은 주로 '이같은 허노명의 변혁이론, 정세관, 전술론에 입각해 유서대필을 해 준 것이 아니냐'며 강기훈 동지가 유서를 대필해 자살을 방조한 것이 반체제 운동세력의 '공산주의자'적 행동이라고 몰아붙여 방정적 돌을 여러동걸 하게 했다. 또한 검찰은 '공산주의자 10대 신조를 아느냐'고 묻고 "혁명을 위해서는 자신의 아버지도 죽일 수 있는 것이 공산주의자"라며 강기훈 동지가 동료의 죽음을 혁명을 위해 이용했다는 후안무치한 논리를 폈다.

이러 진행된 변호인 반대신문은 강기훈 동지가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정도로 간단히 하겠다고 하여 약 20분에 걸쳐 간단히 진행되었다. 변호인 반대신문을 통해 강기훈 동지는 "공소장에는 내가 4월 27일부터 5월 8일 사이에 김기철동지에게 유서를 대신 써 준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로 이 기간에 김기철 동지를 만난 것은 5월 4일 밤 10시경 김기철 동지가 전민련 사무실에 들렀을 때 잠깐 봤던 것 뿐"이라고 진술했다.

어찌같이 유서대필 사건 1심 첫 공판에서 드러난 사실을 전체적으로 볼때 검찰의 심리는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발표된 내용 이상의 새로운 수사결과가 전혀 제시되지 못하므로써 조작수사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 대응에 있어서 변호인 들의 체계적이고 책임있는 또한 승리에 대한 확신에 한 모습이 더욱 결실하게 요구된다는 사실과, 추가기소로 인한 계속된 수사로 지켜있는 듯한 강기훈 동지의 태도는 보다 정당하게 재판을 리드해 나가는 부정적이고 승리에 대한 확신이 더욱 요구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앞으로의 재판은 검찰측이 제시하는 증거의 허구성을 밝히는 동시에 우리측 증거, 증인의 제시를 통해 이 사건이 조작임을 밝혀내는 방향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 김기철의 변호인이 된 김기철 ##

피고인 모두 진술에 앞서서 몇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공소사실 중 자살 방조부분에 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상 일시, 장소를 명시해서 사실을 특정해야만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공소장에 나타난 김기철의 분신자살을 용이케 할 목적으로 4월27일 부터 5월 8일 사이 서울이하 불상지에서 유서를 대필해 주었다. 라는 부분은 검찰의 의도성이 보여지는 부분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정황으로는 김기철씨가 분신계획을 주위에 알린 것은 분신자살 2일전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4월 27일 이후부터 5월 8일사이 서울이하 불상지라 한것은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형사소송법 상의 기본원칙조차 무시되고 있는 이 사건 공소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강기훈 동지의 진술 ##

지난 8월 초 부터 20일까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추가조사를 받았습니 다.

재판에 입하며 본인은 제 개인의 누명을 벗는 것 뿐만아니라 온 국민적 의욕을 벗겨야 한다는 의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유서대필 용의자로 물린 지난 3개월 동안 본인에게 있어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것은 백주대낮에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것 뿐만아니라 그 동안 민주를 위해 싸워온 민주세력에 대한 엄청난 오해를 초래 하게 했다는 점이 더욱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이번 유서대필 사건은 본인을 희생 양으로 삼아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현 정권의 비열한 의도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본인은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이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5월 18일 강경대 열사의 두번째 장례식 도중 본인이 유서대필자로 지목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건의 본질과 내용에 관계없이 본인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날 부터 명동성당 농성에 합류하였습니다.

당시 나는 법치국가에 사는 사람으로써 검찰소환에 대한 출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간 검찰 수사가 언론공세, 정치공세 형태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나는 명동성당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검찰 수사과정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검찰 수사시 이틀씩 계속 잠을 안재우고 모욕적인 손찌검을 당했습니다. 검사외에 경장한 체격의 수사관이 빙 둘러싼 상태에서 조사를 받음으로써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으며 이러한 고도의 수법에 의해 만노이로게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시작 만 하루만에 불가항력의 항거불능 상태에서 자진출두 전에 밝혔던 묵비권 행사를 포기하고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홍성은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검찰은 본인과 홍성은씨가 그렇고 그런 사이인데 홍성은씨를 치버리기 위해 기일이 한테 소개시켜 준 것이 아니냐는 등 본인에게 참을 수 없는 인간적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검찰조사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감정 결과가 얼마나 영타리인가를 알았습니다. 검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5사람의 필적을 같은 사람의 필적으로 감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일지는 나중에 3인의 사회국 부장들이 함께 썼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단 조사 이를 후, 담당검사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혁노명의사록 중 일부의 글씨와 유서의 글씨가 같다고 하며 본인이 혁노명 회의에 참가해서 발언하고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본인이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검찰조사시 유서 또는 메모지 등등 유서필적과 같은 내용을 같은 필기구로 똑같이 작성하라는 것을 반노이로써 상태에서 거부했으나 검사가 자신과 같이 써보라고 강요하여 나중에는 결국 쓰게 되었습니다. 검사와 같이 유서의 내용을 써서 유서와 대조를 해보았으나 오히려 검사의 필적이 유서의 필적과 흡사해서 감박 놀라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 본인이 엄청난 피해의식과 용지 못한 것 속에서 유서의 필적이 동료 누구의 글씨와 비슷하다고 진술한 것이 뼈아픈 일로 남아 있습니다. 그후 그 동료는 형식적으로는 집시법 위반혐의로 구속이 되었고, 내용상으로는 유서대필혐의의 조사를 위해 구속이 되었습니다. 또한 서준식 인권위원장은 아무런 혐의도 없으면서 보복적 차원에서 구속을 당하셨습니다.

조사받는 중 우리나라 법원은 검찰의 말을 믿지, 피의자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검사의 말에 나는 심한 허탈감을 느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짐으로써 그 동안에 피해받은 많은 사람들, 특히 김기철 동지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모두진술을 마쳤습니다.

9월 11일(수)오전 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

공소유지 자신없는 것 같다.

"공소유지 자신없는 것 같다."

지난 28일 열린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27)에 대한 첫공판에서 검찰은 본안인 유서대필 관련 자살방조부문에 대해서는 75여 문항을 신문한 반면 추가기소된 혁노명 사건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90여 문항을 신문해 본말이 전도된 느낌.

검찰은 혁노명 사건 부분을 신문하면서 처음에는 혁노명의 이념과 노선을 묻다가 결론에 해당하는 뒷부분 20여 문항은 주로 '이같은 혁노명의 변역이론, 정세관, 전술론에 입각해 유서대필을 해준 것이 아니라,며 강기훈씨를 집중 추궁.

변호인단은 이와관련 '검찰이 유서대필 사건 관련 자살방조 부분에 대한 공소유지에 자신이 어지자 혁노명 사건 관련 부분을 추가기소해 강기훈씨를 '협공'하려 한 것이 분명해졌다,며 '이는 검찰권 행사의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명공.

"물리면 무조건 공산주의자들의 소행"

강기훈 동지에 대한 1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강씨가 유서를 대필해 자살을 방조한 것이 반체제 운동세력의 '공산주의자'적 행위이라고 몰아붙여 방청객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검찰은 이날 직접신문을 통해 "강씨가 '혁명의 불꽃'등 재야 운동단체에서 익힌 체재변역 이론을 실천하기 위해 친구였던 김기철씨의 자살을 방조하고 유서를 대신 써준 것이 아니라 "그 문고 '혁명'을 위해서는 자신의 아버지도 죽일 수 있는 것이 공산주의자"라며 강씨가 친구의 죽음을 혁명을 위해 이용했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검찰의 이런 논리는 유서대필의 일시와 장소도 특정하지 못하는 등 검찰의 빈약한 수사결과를 방어하려는 동기에서 나온 억지주장"이라고 혹평했다.

"강기훈씨가 박노해씨보다 더 무섭구만!"

강기훈동지의 1차 공판이 열린 8월 28일 서초동 법원은 완전히 전시체제였다. 대. 알고보니 강기훈씨의 진실과 양심의 소리를 듣고자하는 방청객 들을 견제하기 위하여 사노명의 수괴라고 헌정권과 검찰이 사형구형까지 내린 박노해씨의 재판때보다 더 많은 전경들을 풀어 놓은 것. 법원 정문앞에다

백골단 으로 장벽을 쳐 놓고 417호 강기훈씨 재판정으로 가는 시민, 학생들을 몸수색하고 신분증은 정문수위실에 대기하고 있던 치안본부 요원들이 일일이 전화로 확인까지 했다니 기가 막힐 지경.

재판 방청 경력이 7년 짜 라는 한 시민은 '법원 출입 7년 동안 이렇게 삼엄한 경비는 처음'이라며 '헌 정권과 검찰이 이번 사건에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이렇겠느냐! 강기훈씨가 박노해씨보다 더 무섭구만!'이라고 한 마디.

강기훈씨의 재판을 방청하러 온 단국대의 한 학생은 신분증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백골단에게 구타당하기도 했으며, 여자 방청객들도 수위실 안으로 불려 들어가 몸수색 및 가방 수색을 철저히 당했다.



성명서

강기훈씨 1차 공판에 즈음하여

기독인의 신앙양심에 따라 김기철씨 유서대필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노력해 온 본회는 유서대필혐의로 기소된 강기훈씨 1차 공판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본회 김기철씨 분신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의 자체조사를 통하여 김기철씨의 유서는 자필임이 확실함으로 검찰이 강기훈씨를 유서대필혐의로 기소하는 것은 국가 공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행위임을 우려하여 강기훈씨의 기소철회를 간곡히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강기훈씨를 자살방조혐의로 기소하였다. 이러한 검찰의 부당한 처사에 맞서 본회는 지난 7월 18일 일본 최고의 감정가 오니시 요시오씨의 필적감정결과를 근거로 김기철씨와 강기훈씨의 필체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감정결과발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아시아기독교협의회, 일본교회협의회 등 세계 기독인들이 진리와 양심을 수호하려는 의지의 표출이었다.

유서대필공방의 진위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난 8월 21일 강기훈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추가 기소함으로써 또 한번의 잘못을 저질렀다. 이미 오래전에 조작사건으로 드러난 학노맹 사건으로 검찰이 강기훈씨를 추가기소한 것은 어떠한 방법유 써서라도 강기훈씨를 비롯한 제아단체의 도덕성을 실추시키기 위한 의도인 것이다. 본회는 검찰의 추가기소는 어떻게든 강기훈씨를 유서대필관련 혐의로 자기들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의도라는 것을 밝혀둔다.

본회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강기훈씨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아울러 본회는 재판부가 정의와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그의 무죄를 입증할 것을 기대한다.

1991. 8. 2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박광재

강기훈 후원기금 마련을 위한 하루주점  
"진실은 승리한다"

- 연 제/1991년 9월 15일(일) 오전 11시 ~ 오후 10시
- 어디시/성대일 주점 지리산(☎ 741-4557)
- 주 가/강기훈 후원회(☎ 278-2483, 743-9127)
- 먹거리지원회: 백주, 마주안, 과일음, 민상차, 오징어, 미분민주, 아태살러드



전국민적민주운동연합  
강기훈후원회  
1991年 9月 13日

재판투쟁속보 2호

유서대필 남조조작 사건

유서대필사건 1심 2차 공판 소식

유서대필사건 1심 제2차 공판이 9월 11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417호 법정에서 서울형사지법 합의 25부 심리로 160여 명의 방청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신상규, 송명석, 임철경, 김경수, 유서대필 조작의 장본인들과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공안부 검사 등 검사 4명과 이석태, 박연철, 김창국, 유현석 변호사 등 4명의 변호인이 참석하였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총 17종에 달하는 증거물 중 -김기철씨의 유서, 주민등록본상신고서, 책표지, 업무일지, 수첩, 이력서, 카드, 필지와 강기훈씨의 화확노트를 증거물로 제시하였다. 또한 김기철씨의 가족들(옛째 매형 장병호, 아버지 김성림, 고종사촌 이재구)에 대한 증인신문을 했다.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사 신분이 진행되었고, 11시30분 경 재판을 끝마쳤다. 강기훈 동지는 변호사 신분이 진행되면서 검찰의 유서대필 주장을 논리적으로 공박하기 어려웠던 데다 검찰이 제시한 진민현 사회적 부장 임무명 동지의 글씨가 유서의 글씨와 비슷하다는 느낌에서 유서가 대필된 것 같다'고 진술했다. 먼저 '그러나 임무명 동지와 맞대면한 뒤 군 임무명 동지가 쓰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지금은 유서가 대필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기훈 동지는 또 '검찰은 나의 집에서 압수한 학노맹 회의록과 학노맹 관계자의 메모지를 제시하면서 '대검문서감정실이 연봉은 많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보다 낫다. 우리는 회의록 일부와 학노맹 관계자의 메모지 및 유서를 동일인이 쓴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두 문건의 작성 여부를 중요하게 추궁했는가 하면 임무명씨의 글씨가 송의어권 학생들이 써서 한 김기철씨의 글씨와 똑같다며 임씨를 대필 용의자로 지목하는 등 잘못된 필적 판단으로 수사에 혼선을 보였다고 밝혔다.

강기훈 동지는 이어 '검찰은 '유서대필을 시인하면 학노맹 문건도 문제되지 않겠다'는 회유에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들을 모두 공안관련 혐의로 잡아넣겠다'는 협박까지 하면서 '자백'을 강요해 나머지 사람들을 구해야 겠다는 심정에서 거짓자백이라도 할까 하는 생각까지도 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증거로 제출한 수사기록 가운데 상당부분에 대해 변호인이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김기철씨의 매형 장병호 씨, 홍성은 양, 국가수 직인 김형영씨 등 6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1차로 김기철씨의 셋째 매형 장병호씨, 아버지 김정렬씨, 외사촌 이재구씨 등 3명을 오는 25일 3차 공판에서 신문하기로 했다.





### 유서대필 반대신문 요제

- 변호사 : 출두한 이후 목비권을 행사한 이유는.
- 강기훈 : 검찰수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판단하였고, 유서가 대필되지 않았다는 변한 사실이 왜곡되는 상황이였다. 또한 우리쪽에서 제시한 증거물들을 모두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검찰은 이 모든 것들이 조작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검찰에게 목비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자 검찰은 계속 언론에 때려 나를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하였다.
- 변호사 : 검찰에서 자술서를 쓰면 검찰의 모든 자료를 보여주겠다고 제의했다는 데 사실인가.
- 강기훈 : 사실입니다.
- 변호사 : 혐노맹 문건을 제시하면서 제조시키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으나.
- 강기훈 : 예, 있습니다. 유서대필 사실을 시인하면 혐노맹 관련 사실을 문제삼지 않겠다고 해서, 검찰 말고도 안기부, 기무사등이 나에게 대해서

복합 유서대필 조작사건 3차 공판 복합  
9월 25일 오후 3시  
417호 대법정

## 강기훈부장을 즉각 석방하라

###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서울시 종로구 충정로 101-2 아성빌딩 4층  
☎ (02)743-9127 ~ 8 fax: 742-8289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한국여성성단체연합회  
기독교사회운동연합회  
민족자주·통일발교운동협의회  
(합권)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민주교사회운동협의회  
민족자주정회통일중앙회의  
서울민족민주운동협의회  
인천지역민족민주운동연합회  
경기북부민족민주운동연합회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회

광주·전남민주연합

- 입맛을 다시고 있다고 하며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고 협박하였다.
- 변호사 : 입수수색을 예상했을텐데 왜 문건들을 치우지 않았나.
- 강기훈 : 혐노맹 문건이 집에 있었는데 출도 몰랐고 또 내가 혐의자로 몰릴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 변호사 : 수첩의 절취선이 일치하지 않았고 송의여전 메모지와 수첩 필적이 같고 유서필적과 비슷하다고 인정한 적이 있는가.
- 강기훈 : '논리적으로 봐서 유서대필은 분명하나 나는 대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서에 기록한 적이 있다.
- 당시에는 수첩의 절취선이 일치하지 않아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국가수의 감정결과가 나와 논리적 반박이 불가능 했다. 송의여전 메모지는 임부영씨 필적과 비슷하다고 여겨져 진술서에 작성했으나 이후 임부영씨와 대질과정에서 제 자신이 엄청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고 있음을 알았다. 지금은 유서가 대필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변호사 : 검찰은 유서대필을 자백하면 혐노맹사건을 덮어두겠다는 회유와, 혐노맹 문건과 관련하여 강기훈씨 주변사람들을 구속하겠다고 협박당했을 때의 심경은 어떠한가.
- 강기훈 : 매우 참담했다. 차라리(사실은 아니지만)대필했다고 말하고 다른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더우기 유서대필을 했다고 가정하고 상황설정을 해보며 그들이 믿어줄 지 혼자 고민해보기까지도 했다.
- 변호사 : 철야조사는 받았는가.
- 강기훈 : 2틀밤은 2번, 하루밤은 3번을 받았다. 신문은 보통 오전 10시부터 새벽1시까지 까지 받았다. 신문에는 담당김시 1명(신상규)과 각각부 검사 진원이 2-3시간 간격으로 고대로 했고, 그리고 건장한 수사관들 5-6명이 빙 둘러싸고 진압하였다.

대구·경북민족민주운동연합  
경남민족민주운동연합  
부산민족민주운동연합  
제주민족민주운동연합

# 유서대필 날조조작 사건 재판투쟁속보 3호

악법 철폐! 석방 양심수!  
해체 민자당! 퇴진 노태우!



현재 이 나라의 전국 30여개 고도소 및 구치소에는 1,300여명에 이르는 양심수와 정치범들이 단지 민주주의와 생권, 통일을 요구했다는 죄목으로 갇혀 있습니다. 이는 6공화국 들어 최대의 숫자이자 전두환의 5공화국 시절보다도 두배가 넘는 숫자이며, 어떠한 이데올로기 조작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정치적 탄압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높고 있는 양심수의 존재와 민주주의의 후퇴는 한 노태우정권이 국민의사에 반하여 장기집권을 꾀하려는 음모를 포기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민주세력과 개인들을 탄압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극보법, 안기부법, 노동악법, 교육악법 등 반민주악법의 철폐투쟁과 양심수 석방투쟁을 통해 이러한 한 정권의 장기집권음모를 분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민주교사회운동협의회	경기남부민족민주운동연합	대구·경북민족민주운동연합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민족자주정회통일중앙회의	경북민족민주운동연합	경남민족민주운동연합
한국여성성단체연합회	서울민족민주운동협의회	부산민족민주운동연합	제주민족민주운동연합
기독교사회운동연합회	인천지역민족민주운동연합회	대전·충남민족민주운동연합	제주민족민주운동연합
민족자주·통일발교운동협의회	경기북부민족민주운동연합회	전북민족민주운동연합	
(합권)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회	광주·전남민주연합	



현 정권이 일으킨 유서대필 날조조작 사건은 무고한 젊은이 강기훈씨의 한 인간으로써의 양심과 인권의 문제를 넘어, 진실과 거짓, 양심과 비양심세력간의 물리칠 수 없는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은 민주세력의 도덕성을 실추시키고 탄압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글썽 능력이 없는 또 문맹자도 병자도 아닌 그 김기실 전민련 사회부장의 유서를 대필했다는 상상 유래 없고 터무니 없는 혐의로 무고한 강기훈 전민련 부장과 서준식 인권위원장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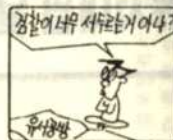
그러나 검찰이 내세우는 혐의의 근거는 단지 전혀 신빙성이 없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과 불법 감금 수사하에서의 얻어낸 홍성은양의 진술 뿐입니다. 더우기 검찰은 강기훈씨에 대한 19일 간에 걸친 온갖 말살고문수사를 통해서도 유서를 언제, 어떻게, 어디서 왜 대필했는지를 밝혀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JNCC)의 필적감정의뢰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강기훈씨의 무죄가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정권이 그토록 내세운 '과학적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감정이 3사람 이상의 필적을 같은 것으로 영터리 한정된 것임이 드러나는 등 강기훈씨에 대한 4차례의 공판을 통해 검찰의 유서대필 주장은 전혀 터무니 없는 허구에 가득한 것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조작의 증거가 드러나자 검찰은 허둥지둥 상투적인 수법으로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기소 함으로써 자신들의 조작수사를 은폐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명백한 물증이 있고 진실이 있기에 우리의 승리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무고한 한 개인의 양심과 인신의 구속을 넘어 민족민주운동의 도덕성과 양심, 나아가 이땅의 공동체적 질서를 유지하는 모든 국민의 양심과 진실이 서느냐 무너지느냐 하는 문제이기에 모든 민주, 양심세력과 함께 이 사건 조작음모의 진상과 책임자의 처벌을 위해 단호히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미주알



▶ 유서대필 조작사건 제5차 공판 안내 ◀

일시 : 1991년 10월 23일 (수요일)

장소 :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

공판내용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 김기실의 여자친구 홍성은양, 홍성은의 어머니 윤석순에 대한 신문

날조조작 중단하고 강기훈부장을 즉각 석방하라

〈유서대필 조작사건 공판 소식〉

- 1차 공판 (8월 28일 오전 10시)-김창국 변호사의 모두진술, 강기훈씨의 모두진술, 검찰 직접신문(유서대필 75항, 혁노맹 관련 90항)
- 2차 공판 (9월 11일 오전 10시)-검찰 총 17가지에 달하는 증거제출, 6명의 증인신문, 변호사 반대신문
- 3차 공판 (9월 25일 오후 3시)-김정렬(김기실의 아버지), 장병호(세재대 형), 이재구(고종사촌) 증인 신문, 김정렬, 장병호 증인출석 거부
- 4차 공판 (10월 9일 오전 10시)-김정렬, 장병호, 김형영(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증인신문과 변호인 반대신문

## 유서대필 조작사건 4차 공판 소식 ##

10월 9일 오전 10시 대법정에서 열린 4차 공판에는 김기실씨의 아버지 김정렬 씨가 나와 검찰의 신문을 통해 유서의 필적이 기실이의 필적이 아닌 것 같다는 것과 유서 내용에서 큰누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유서가 대필된 것 같다는 오지의 증언을 했다. 다음에 나온 김기실의 세재 대형, 장병호씨도 김기실씨의 아버지와 같은 오지의 증언을 했다. 그러나 이 두사람 모두 확실한 근거에 입각해서가 아닌 막연한 느낌을 중심으로 증언을 했다.

오후 속개된 공판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인 김형영씨에 대한 심리가 있었다.

변호사 반대신문 과정에서 증인은 감정기준에 대해서 처음에는 감정대상 문서의 동일특징 비율이 70% 이상이면 同-필적, 45% 이하 이면 相異한 필적, 70%-45%에 해당되면 異同어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감정했다고 증언했으나, 심리가 계속되면서 결국 감정결과라는 것이 유서와 같아 보이는 부분을 감정원이 지적하여 확대사건으로 첨부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업무일지의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유서와 동일필적으로 감정한 바 있는데 수사과정에서 업무일지가 3인의 필적이 밝혀지자 이에 대해 유서와 달라보이는 다른 2인의 필적은 감정대상에서 제외하고 감정했다고 시인함으로써 결국 국가수의 감정이 강기훈의 필적 중 유서와 비슷해 보이는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선택하여 일반 카메라로 확대한 사진을 비교해 놓은 것이 명백해 진 것이다.

더구나 끈질긴 변호인의 신문에서 강기훈의 필적에 있어서 전체적인 필획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경사되어 있는데 비해 유서는 그 반대 방향이고, 또 유서의 'ㅎ'의 필법이 'ㅎ'이 더 많음에 비해 강기훈의 필적에서는 'ㅎ'과 같은 필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국가수 감정인 스스로도 실토했다.

이외에도 증인은 처음에는 감정문서에 대해 누구의 조언을 받지 않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양심에 따라 감정했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매번 감정의뢰시 마다 담당 검사가 직접 와서 감정문서에 대해 직접 설명을 해 주었다고 시인함으로써 감정에 있어서 검찰과 직접적인 협의가 있었음을 짐작케 했다.







가 관심을 보였다는 진술을 반복하며, 강기훈씨는 관심을 보인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또 검찰진술때 강기훈씨가 유서를 대필했다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강기훈씨 집에서 입수한 편지(이 편지는 결국 강기훈씨가 쓴 것이 아니라 구속중인 허노맹 관계자가 쓴 필적이었음이 이미 밝혀졌다.)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로써 명백한 사실을 놓고서도 흰것을 검은 것이라고 주장해 온 검찰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날조임이 더욱 분명해졌다. 검찰은 그동안 강기훈 동지에 대한 19일간의 고문수사는 물론, 홍성은씨를 비롯한 수십명에 달하는 참고인에 대한 불법·강압수사, 조작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온 서준식 전민변 인권위원장에 대한 보복구속, 참고인으로 소환된 임무영 사회부장에게 대한 별건 구속, 참고인 가족에 대한 협박 등이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왔었다. 뿐만아니라 공권력의 힘을 빌어 허울좋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허위감정을 함으로써 많은 국민의 눈을 현혹시켜 왔다.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자신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파쇼정권의 속성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날조조작 중단하고 강기훈부장을 즉각 석방하라

##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한국어성단체연합회 가톨릭교사회운동연합 민족자주·통일불교운동협의회 (총괄)	민주교사회운동협의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서울민족민주운동협의회 인원지역민족민주운동연합 경기북부민족민주운동연합	경기남부민족민주운동연합 강원민족민주운동연합 충북민족민주운동연합 대전·충남민족민주운동연합 전북민족민주운동연합	대구·경북민족민주운동연합 경남민족민주운동연합 부산민족민주운동연합 제주민족민주운동연합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민족민중미술훈공민족연합	광주·전남민주연합	

11월 6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6차 공판에서는 오전 10시에 홍성은씨에 대한 증인신문부터 시작 될 예정이었으나, 홍성은씨가 재판부에 편지를 보내 재차 증인 출석 거부의를 밝혀왔다. 따라서 재판부는 검찰측과 변호인 측의 합의를 통해 11월 7일 보도지만 임회한 후 7차공판을 비공개로 열기로 결정하였다.

오후에는 변호인측 증인에 대한 신문이 있었다. 증인들은 성남 '타시랑정' 년학우회, 창립대회 발명목, 원추전교조 지회 개소식 발명목, 수원민청련 창립 대회 발명목, 강남민청련 상황일지 등의 김기철열사 밀책 증거물에 대해 그 필적이 김기철열사의 필적임을 진술했다. 이 필적들은 누가 보아도 한눈에 유서 필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다.

## 유서사건 항방기를 '결정적' 증거

— 강기훈씨 변호인단 새 필적자료 2종 제시

- ▶ **속초 동우신문대 학내 폭력사건관련 녹취록** ◀◀  
성천의 김기철 동지가 3월 경 속초 동우신문대 사건 진상조사 활동과정에서 홍성은씨와 함께 노트에 녹음테이프를 붙여 쓴 것으로서 이는 홍성은씨도 7차 공판에서 김열사의 필적임을 확인하였다.
  - ▶ **김열사 본신당일 복사한 수첩복사본** ◀◀  
검찰은 그 동안 진민련에서 제출한 김열사의 수첩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해 왔고, 필적진에 대한 국과수 감정까지 동원하여 국민의 눈을 현혹시켜 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므로 완전 날조임이 드러났다.
- 이 수첩 복사본은 김기철열사와 성남에서 같이 활동한 동지들이 김열사 본신 당일인 5월 8일 연락을 위해 복사한 것으로서 진민련이 제출한 수첩본과 동일한 것이다. 이 수첩 복사본이 제출됨으로써 강기훈씨가 5월 16일과 18일 사이에 연대에서 수첩을 조작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완전한 날조임이 증명된 셈이다.



민중혁명 재취기를 위한  
하나 되어야 합니다.  
— 김기훈 기 성우

(김기철동지의 유서)

강력 자주·민주·통일의  
선봉이 되시라 강기훈







혁명을 위해서는 '성'도 도구화-권과 같은  
 과경의식화된 핵심 문제학생들은 그들 스스로의  
 의식화 과정과 조직활동 투쟁과정에서 상호연대의식 '고위,  
 일체감 조성 및 조직이탈 방지 등을 위해서 '성'을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권의 수사과정에서의  
 상모욕주장은 인간성의 침해를 빙자하여 대중의  
 혁명적 투쟁을 선동하려는 지의가 깔려 있다.  
 (권인숙씨 선고문서건에 대한 소위 '공인당국'의 분석 중에서)

피고인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산주의자의 10대 신조를 맹신하고.....  
 목적을 위해서는 동료의 생명까지도 혁명의 도구로 사용하는  
 좌경혁명분자로서의 피고인의 비인간적, 반인륜적 성향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상의 이념으로 삼고 있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천인공로할 범 죄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강기훈씨 담당검사 논고 중에서)

잠시 후면 검찰청으로 떠나게 될  
 지금의 제 심정은 진실하기에 땀땀하면서도  
 한편으로 하소연할 길 없는 억울함과  
 무거운 마음이 교차함을 숨길 수  
 없습니다. 결백한 저에게 유서대필자,  
 자살방조범이라는 범죄자의 굴레를 씌우려는  
 공권력에 맞서 제 양심을 지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저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기대한 공권력에 의해 거짓과 비양심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무고한 개인이 권력의 힘에 의해  
 끝내 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된다면 그런  
 사회에서 인간에 대한 어떤 신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강기훈씨 출두성명서 중에서)

머리글

### 우리가 원하는 것은 건전한 상식의 승리입니다



내용은 바로 성서말씀의 인용이라는 변호사들의 침변을  
 듣고는 "아니다"라고 뉘엿뉘엿 하면서 그런 성경을 가져와  
 보라고 했다. 성서를 눈 앞에 갖다 대니까 멍멍이 하면서  
 기소장에서 그 내용을 읽도 없이 슬그머니 빼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성서를 우리는 하나님-님의 법(法)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의 법은 정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위권  
 정의에서만 참사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의  
 교육을 사랑의 세력이라 부르며 불의한 행동은 폭력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반영한 인간의 법과  
 질서, 그것을 책임받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법이 이름  
 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권력욕, 명예욕, 소유욕  
 등 불의한 욕심때문에 선한 사람들이 뺨바당하며 죽어가  
 고 있습니다. 성서는 바로 조차와 누명에 의한 의로운  
 이들의 억울한 죽음, 곧 순교자들의 외침과 기도를 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라는 것들, 사제라는 것들, 어른이라는 것들,  
 예언자라는 것들'(미가 3, 9 이하 참조)이 거짓세력과  
 불의에 약화할 때 하나님의 정의, 곧 분노의 말씀이 무섭  
 게 하늘로부터 내려치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곧 민중의  
 힘입니다. '백성의 소리가 하늘의 소리(vox populi, vox  
 Dei)'라는 라틴어 격언은 바로 진실한 삶과 세력의 위대함  
 을 강조한 성서의 또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 땅에 권력의 하수자로 권력한 검찰청의 폭력에  
 맞서 의로운 이들이 떨쳐 일어났습니다. 정의란 바로 세우  
 기 위해서입니다. 조차와 불의 앞에서 분명히 "아니다!"  
 라고 외치며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희망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니  
 다.

검찰이 사랑의 세력으로 교화되기를 바랍니다.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선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함 세 용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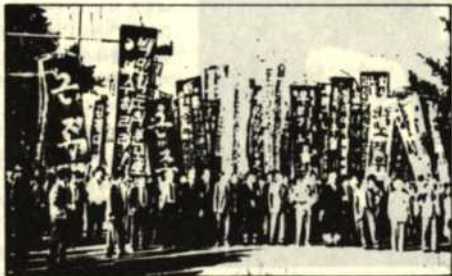
말할 것들!  
 권력이나 쥐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무뎠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고 마는  
 이 이당들아,  
 우리는 밤이 있으면 빼앗고  
 우리는 길을 만나면 제 것으로 만들어  
 그 길과 함께 일지도 종으로 삼고,  
 빈과 함께 밤 주인도 부러 믿는구나.  
 나 아해가 선언한다.  
 나 이제 이런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원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미가 예언서 2, 1-2의 성서말씀입니다. 성서는 권리  
 의 말씀이기에 거짓과 불의를 꼬집어 성의를 채우고,  
 사상을 재촉합니다. "유선만이 참 길이다"라고 외쳐대던  
 70년대 말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 위의 성서말씀을 인용  
 했다가 검찰에 의해 구속되고 성서말씀이 그대로 기소장  
 에 실려 고발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재판 도중 위의



### 진실과 정의의 대장정 (1991년 4월~12월)

- 4.26 병사대 강경대 학생, 시위 도 중 백감단에 의해 타살.
- 4.27 '고강경대일사 같이독의 남한과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범국민 대책회의' 결성.
- 4.29 '범국민 대책회의', 제1차 국민대회 개최, 전남대 박승희 학생 분신.



5·18 김경대 학생의 장례행렬 모습. 전국적으로 60만명이 넘는 인파가 시위에 참여한 이날, 김철은 김기훈씨의 유서대필행위를 발표하였다.

- 5.1 안동대 김영규 학생 분신.
- 5.4 제2차 국민대회(백감단 해체 선포의 날), 강경대 천재홍 학생 분신.
- 5.5 고 김기철, 방동태 '소리새'에 의한 이치해, 송국영에게 처음으로 분신 의사 밝힘.
- 5.6 한진중공업 박상수 노동조합 위원장, 안양병원에서 의문의 죽음.
- 5.7 청와대 고위 낭청회의, 이따진 분신사건의 배후수사 명칭 변경.
- 5.8 05:00 김기철, 대학로에서 전화하고 오겠다며 사라짐.

- 5.10 고 김기철 추모집회.
- 5.11 전민련, 김철의 요구로 김기철의 필적이 담긴 사회국 업무일지 제출.
- 5.12 고 김기철 장례식(모란공원).
- 5.13 오후 10시 서울서검 강역부, 홍성은 불법연행 일수기록(15일 밤 김철수사관과 잠깐 함께 있던 것을 제외하고 17일까지 약 100여시간 동안 불법수사).
- 5.16 김기훈 여사친구 이영미 강제연행.
- 5.18 고 강경대 학생 장례식(5월 정국에서 최태인과 함께), 이경순(현주교 신사), 장례행렬 선두가 지나던 연대앞 굴다리에서 분신 부신, 일부 언론, 이경순씨가 분신 당시 전민련 유인물 100여장을 얻고 밀어줬다고 허위 보도함으로써 마치 전민련이 일련의 분신사건과 관련

- 06:30, 김기철, 인천에서 홍성준에게 마지막 전화 (이것이까지 남아 열람되지 않았다).
- 08:07, 김기철, 서강대 옥상에서 분신후 부신.
- 오전에 서강대 박승희 학생 기사회생 (국립을 신봉하는 이들의 새이

있다).

정구영 검찰총장, 분신배후 수사 지시.

12:00, 홍성은, 연대대 '범국민 대책회의'에 와서 김기철 수첩 전달(이후 이 수첩은 대필시비가 인기까지 대책회의 자료보관함 속에 보관되어 있었음).

윤용희, '누가 분신을 배후조종한단 말인가, 노태우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퇴진하라'라고 외치며 분신.

전민련, 김철의 요구로 김기철의 필적이 담긴 사회국 업무일지 제출.

고 김기철 장례식(모란공원).

오후 10시 서울서검 강역부, 홍성은 불법연행 일수기록(15일 밤 김철수사관과 잠깐 함께 있던 것을 제외하고 17일까지 약 100여시간 동안 불법수사).

김기훈 여사친구 이영미 강제연행.

고 강경대 학생 장례식(5월 정국에서 최태인과 함께), 이경순(현주교 신사), 장례행렬 선두가 지나던 연대앞 굴다리에서 분신 부신, 일부 언론, 이경순씨가 분신 당시 전민련 유인물 100여장을 얻고 밀어줬다고 허위 보도함으로써 마치 전민련이 일련의 분신사건과 관련



5·12 김기철씨의 장례식 모습(서강대). 김철의 유서대필시비로 인해 김기철씨가 분신으로 황거한 순수한 동기는 완전히 왜곡되어버렸다. 김철은 바로 이 점을 노렸던 것이다.

- 이 있는 듯한 근거없는 의혹을 불러일으킴.
- 석견신문에 김철이 전민련 총무부장 K씨가 김기철씨의 유서를 대필했다는 혐의를 두고 수사에 나섰음을 대서특필.
- 5.19 전민련, 김기철과 김기훈의 필적공제(수첩, 김기훈의 옥중편지) - 전민련은 유서의 필적공제가 제기되자 '동한 '범국민대책회의' 자료함에 방치되어 있던 김기철의 수첩을 찾아내어 공개. 전민련측은 김철의 유서대필 주살이 김기철의 수첩공제로 원시에 무너져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귀하로 김철에게 제출. 그러나 김철은 이때부터 '수첩조작'이라는 무서운 음모를 준비.
- 5.21 4월 18일 김기철이 송의여전 학생들에게 배준 메모지를 본인들이 직접 공개.
- 5.22 전민련, 성남 시사당 청년학우회 방명록, 이덕식 공개. 각회 방명록은 각지에 여러나라의 필적이 담겨 있는 것으로 김기철이 한필타이라는 가명으로 사행한 유서 필적과 동일한 필적이었음.

- 와 동일한 필적에 필적.
- 김철, 한기래신문이 필적감정을 의뢰한 사실감정원 알수없.
- 5.23 김철, 전민련 관계자 방명록에 대해 증거인멸 및 변인은너 함의로 사건 / 옥중편지 방명록에 방명(김기훈을 유서대필자로, 전민련을 배후조작으로 기물사건화시키는 여론공제).
- 5.24 전민련, 성남 민방련 실행위장 공개(김기철이 문답고 있었던 성남 민방련의 활동일지로 수계환관이 활동상황이 기록되어 있음. 이 일지에는 김기철의 필적에 필적해 두가지 필적이 모두 발견됨으로써 김기철은 김기철의 필적으로 주장해온 김철의 주장을 뒤엎는 자료).
- 5.25 김철, 전민련이 제출한 수첩이 조작되었다고 발표. 시위현장 과정에서 방명록에 김기철 필적이 사행.
- 5.26 김철, 각지방조직에서 김기훈에 대해 사건 / 옥중편지를 신빙.
- 6.7 김기훈, 김수환 추기경에게 자신의 필적과 김기훈의 필적을 호소하는 편지보냄.
- 6.18 성남에서 홍성은 은신처 발견, 취재기자 경찰에 연행.
- 6.29 서문서 전민련 인권위원회 구술, 보관관필적과 김시범





조사도 받기 전에 이미 자살발조지로 난인 찍힌 채 하소연할 길 없는 억울함 속에서도 답답한 표정을 잃지 않고 있는 강기훈 씨(5월 20일 명동성당 기자회견 중)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사실은 검찰이 유서대필 주장에 대해 앞장 서서 반박해 온 것에 대한 보복구속

6. 24 강기훈 검찰에 자진 출두. 강기훈은 자진 출두에 앞서 "피고인으로서가 아니라 검찰의 부도덕함과 타박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법정에서 서겠다"는 성명서 발표.

7. 2 검찰, 소위 '유서대필' 배후관련 참고인 14인 전국 수배령.

7. 6 검찰, 새로운 대필용위자로 전민원 임무영 부장 연행. 혐의가 없자 임시범 등으로 보복구속.

7. 122 검찰, 강기훈 구속 기소, 사건 수사 발표.

7. 1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KNOC), 일본인 강정인 오니시의 편지감정 결과 발표.

8. 28 강기훈 1차 공판. 변호인단은 모두 진술에서 "철사소송 범람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되고 있는 이 사건 공소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 강기훈은 모두 진술에

서 "유서대필 용위자로 몰린 지난 3개월 동안은 본인에게 가장 고통스런 고역의 시기였다", "이번 유서대필 사건은 본인을 희생양으로 잡아 붙순한 범죄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헌정권과 배후권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다"라고 주장.

9. 11 2차 공판. 강기훈은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검찰은 '유서대필을 시인하면 희노애상권 관련도 문제삼지 않겠다'는 회유에서부터 '이 사건 관련 참고인들은 모두 공인관련 혐의로 잡아넣겠다'는 협박까지 하면서 지면을 강요해, 나머지 사건들은 구해야지 않냐! 신장에서 치라리 거짓자백이라도 한 생각까지도 했었다"고 진술.

9. 25 3차 공판. 강기훈 친척인 이재규에 대한 증인 신문. 이재규는 유서가 강기훈의 필적과 다르다는 취지로 증언. 국민학교 때부터 강기훈을 만난 때부터 100여 차례에 걸쳐 강기훈이 편지용 휴대내외 연술했다는 못지 못할 내용을 증언.

10. 9 4차 공판.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증인 신문.

10. 23 5차 공판. 4차 공판에 이어 김형영에 대한 증인신문 계속.

11. 6 6차 공판. 홍삼은 증인출두 거부. 변호인측 동우원분대 확대 폭력사건 관련 녹취록(홍삼은과 강기훈이 같은 노트에 녹취한 것)과 본인 당일 복사한 수첩 복사본(검찰의 수첩조작 논리를 뒤엎는 방송자료) 제출.

11. 7 7차 공판. 홍삼은에 대한 증인신문. 검찰측 요구로 비공개리에 진행된 공판에서 홍삼은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강기훈이 검찰의 편적오인을 유도하기 위해 홍삼은의 수첩에 강기훈의 연락처를 적어주었다고 한 진술 내용을 반복하여 "강기훈씨가 쓰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고 증언.

11. 20 8차 공판. 변호인측 증인들의 신문. 변호인이 제출한 강기훈의 필적과 관련하여 유서가 강기훈 본인의 필적을 증언.

11. 27 9차 공판. 일본인 강정인 오니시 증인신문(감정내용은 이 해자후반에 진술을 공개함).

11. 28 10차 공판. 일본인 오니시 증인신문 계속.

12. 4 11차 공판. 검사, 자살발조와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강기훈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3년 구형. 변호인단, 정부의 변론요지서를 통해 피고인의 견해를 주장(기적이 진실을 이기는 사회는 정의사회가 아닙니다).

12. 20 12차 공판. 재판부, 3년 징역형 선고.

강기훈 어머니 글

차등 없는 인권 세상이 되기를



우리나라에는 인권에도 등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유 없이 권여만원을 받아쓰고도 2~3일도 간단히 조사를 갈마칠 수 있는 국가수 김형영씨의 인권은 몇 등급이며, 돈을 고사하고 '안했다'는 말밖에는 한 말이 없었던, 그리면서도 19일 동안 갖은 회유와 모욕과 잠 안채우기 고문을 당했던 강기훈의 인권은 몇 등급일까요?

수십 명의 증인의 증언과 그 많은 증거들을 정그리 무시한 채 '국립'과 '과학'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영타리 감정을 한 김형영씨의 손이 들어준 것은 사법부였습니다. 그러한 노골적인 권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사는 자택에서 끌어타진 추한 실상들을 만천하에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감싸안고 축소하려 하는 듯한 검찰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더러운 누명을 쓰고 8개월째 갇혀 있는 강기훈의 어머니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돈을 받았는데 허위감정은 안했다니? 천 만원이란 돈이 그렇게 이유없이 주고 받을 수 있는 액수입니까?

검찰에 묻고 싶습니다. 기훈이를 수사할 때 그 기세등등하고 시슬 떠돌던 영정은 어디에 버렸습니까? 시른도 안된 한 청년은 수십 명의 검사, 수사관들이 19일 동안이나 단단을 하더니 실타래처럼 얽혀 복잡하기 짝이 없는 국가수 사건은 관련자만도 10여 명인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마무리지어 버릴 수 있다 말입니까? 강기훈을 난도질하던 그 손이 김형영씨에게 어떻게 그렇게 따뜻한 어머니의 손길로 변했습니까?

말에 떨어진 공신력을 제자리로 끌어올리는 길은 공정한 수사,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수사관 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내년도 도덕적으로 부끄럽지 않게 성장했다고 자부했던 자식이 당신들의 손에 의해 교활하고 파렴치한 자살발조범으로 만들어져 갈 때의 참담했던 심정을 그대로는 짐작이나 합니까? 참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나마 실낱같은 희망을 걸었던 사법부마저 당신들의 권이 되었을 때의 처절한 절망감을 알고 있습니까? "진실은 꼭 밝혀진다", "사법기정이다."

지난 9개월 동안 수백 번 수원 번 되뇌이본 이 메아리 없는 절규가 언제까지나 이공에서만 맴돌지는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인권에 차등이 없는 사회가 되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강기훈 어머니 권 대 평



쟁점으로 본 '유서사건'

고개 숙인 판사

I. 사건의 배경

지난 4월 26일, 스무살도 채 못되는 명지대병 강경대군이 학교 앞에서 시위를 하다가 '백관단'에 맞아죽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순식간에 커다란 분노의 파도를 일으켰으며 사흘 후에는 전남 대 바승회장이 혐의의 분신을 하는 또 하나의 충격을 가져왔다. 꼭 무슨 일이 터지고야 만 것만 같은 흥분한 분위기 속에서 세이, 재삼의 분신 사건이 잇따랐다. 5월 4일의 '백관단 해체 선포의 날' 평화적 시위는 엄청난 양의 최루탄이 난무하는 가운데 전국에서 20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시위가 되었다. 이와같은 급격한 정세변화는 정권을 이끈바 '6공 최태의 위기'로 돌아갔던 것이다.

전민련 사회국 부장 김기철씨가 강경대 옥상에서 분신, 투신한 것은 5월 8일, '5월정국'의 내뿜은 분신향기

었다. 그는 옥상에 분재의 그 유서를 남겼다(아래 필적 참조).

김기철씨의 분신 직후 검찰은 현장 조사를 통한 사실증거 확보에 앞서 언론에 '배후세력에 의한 분신자살 조종'이라는 예단유 알릴리 발표했다. 검찰은 이어 그 근거로 분신직후 정황에 있어서의 몇가지 의혹점을 지적했으나 그것은 아무도 채 안되어 모두 사실과 기리가 먼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대해 검찰은 일언반구의 해명도 하지 않았다).

검찰의 이 예단은 분명히 검찰 자체 내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검찰의 '배후세력' 발표가 있기 전날 이미 청와대 고위당정회의에서 이 문제가 거론된 이후 수사방침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당초부터 지극히 정치적인 성격을 띤 것이다. '5월투쟁'의 열기는 점점 고조되어 지만 그 열기의 그늘에서 김기철씨

의 주변인물들이 하나씩 검찰에 강제 언행되기 시작했다. 김기철씨의 여사 친구인 홍성은씨는 언행되어 무려 100시간에 이르는 불면수사를 받았으며, 강기훈씨의 집이 검찰에 의해 3시간동안 수색을 당했다.

5월 18일은 고 강경대학생의 강제 행위가 14일에 이어 두번째로 서울 중심가 진입을 시도한 날이었다. 검찰의 직권선과 태만한 운영한 강제행위 가운데서 강기훈씨가 편집 시간 <국민일보> 사회면에는 전민련 총무부장 K씨가 김기철씨의 유서를 대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기사가 대대적으로 실려 있었다. 그것은 전국에서 64만명의 군중이 정권의 폭력을 규탄하는 시위에 참가한 날, 이른바 '5월 투쟁'의 절정유 이룬 날이었다.

명동성당에서의 '유서대위 공방'은 치열했다. 그것은 어디의 모든 사건을 집어삼키버린 만능 마력을 가지고 있었다. 헌정중공업 노조위원장 장 박철수씨의 의혹투성이인 죽음도, 기대한 시위도, 아니 그 강경대학생의 안타까운 죽음 그 자체마저도... 배당되어온 신분을 손에 든 사람들이 무엇보다 먼저 보는 것은 정치적 사도 시위에 관한 기사도 아닌 권력 비교도편이었다. 이때까지 노태우정 권타도를 외치던 사람들은 유서 권력과 나란히 실린 여기저지 종류의 권력을 응시하면서 고개를 가우동기웠다. 아니, 분병차도 아닌 뿔타리 분병력도 좋고 단편인 사람의 유서를 왜

① 노태우 정권은 뒤집어야 합니다. 민라당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슬픔과 아픔으로 안겨주는 지능의 정권도 꼭 타도되어야 합니다. 더이상 우리에게 슬픔과 아픔은 안겨주지 마셔야 합니다. - 김 기 철 -

Handwritten notes in a table format with dates (4/9, 4/6, 4/9, 4/12) and names (김기철, 김기훈, 김기철, 김기철).

II. 쏟아지는 필적 증거들

검찰은 이 때까지 두 차례의 필적 감정을 마치고 있었다. 1차 감정은 다음의 네 가지였다. 즉 ①유서, ②'누님 우리 해정이...' (전민련총무부장 분신선고서), ③(전민련총무부장 분신선고서), ④(전민련총무부장 분신선고서).

② 누님 우리 해정이 - 김기철 -

③ 김기철 (전민련) 김기철 (전민련) 김기철 (전민련) 김기철 (전민련)

김기철은 ①=④, ②=③, 그러나 유서와 ②, ③은 '유서권과 차이점이 공존하는 필적과 속편 및 필기'에

다른 변희철을 알 수 없어 兇手(兇手)는 단 분기였다. 이 결과 자체에는 크게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검찰은 '兇手(兇手)는 단 분기'를 변태로 '살이 한 필적'이라고 해석하여 '유서와 업무일지 필적은 같았으나 김기철이 누나에게 친절한 핵 표지필적(②)과는 달랐다.' 따라서 유서와 업무일지는 김기철씨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쓰여졌다는 결론을 내렸고, 모든 신문에 유서와 ②를 어짜란 듯이 장식해 뒀다.

이것은 검찰의 교활한 여론조작이었다. 검찰이 일부러 쓰여진 언도를 받지 않은 이 핵 속표지 필적(②)은 실은 김기철이 중학교를 졸업하던 1981년, 그러니까 10년전에 쓰여진 필적일 것이다. 2차 감정은 다음의 세 가지에 대한 것이었다. 즉 ①유서, ③강기훈씨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1985

노태우 정권은 타도해야 합니다. 민라당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슬픔과 아픔으로 안겨주는 지능의 정권도 꼭 타도되어야 합니다. 더이상 우리에게 슬픔과 아픔은 안겨주지 마셔야 합니다. - 김 기 철 -

⑤ 김기철 (전민련) 김기철 (전민련) 김기철 (전민련) 김기철 (전민련)







이 (가)  
 "주거권 재흥회 결의대회"  
 2월 21일 2층 2층 2층  
 "자녀는 시모결의대회"  
 2월 11일 2층 2층 2층  
 4. 4. 4. (가)  
 상안동지분배회 4. 모친회 결의대회  
 2월 6일 (가)  
 전농회 1월 1일 결의대회  
 여사대 (가)

이것은 김기철씨가 4월 18일, 동우  
 건문대 분재를 위한 목요예배를 마치고  
 송이여전 이모령의 3명의 학생들  
 이 직접 보는 데서 자신의 수첩을  
 보면서 적어준 것으로서 학생들은  
 이것을 총학생회실 책상 서랍에 보관  
 하고 있다가 사건이 크게 보도되면서  
 명동성당으로 가지고 온 것이다. 이  
 난에는 김기철씨 수첩(자료 2 뒷부  
 분)에 적힌 것과 똑같다.  
 ① 김기철씨 옥중편지  
 85년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참가

① 2월 21일 2층 2층 2층  
 이 (가)  
 2월 11일 2층 2층 2층  
 4. 4. 4. (가)  
 상안동지분배회 4. 모친회 결의대회  
 2월 6일 (가)  
 전농회 1월 1일 결의대회  
 여사대 (가)

사건에 연루되어 2년형을 받은 김기  
 철씨가 옥중에서 가족에게 보낸 20  
 봉 가량의 편지. 김철은 가택수색을  
 하면서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옥중편지는 봉합봉으로 겹면

우체국 소인과 교도소 직원, 그리고  
 김기철씨 본인의 이름이 나오고 뒷면  
 에 '김철철' 도장과 본분이 나오는,  
 교도관 임의하에 작성된 편지이다.  
 육안으로도 유사 필획과 다른 이 증거  
 를 김철은 제출요구조차 하지 않고  
 "전혀 강박 편지인지 믿을 수 없다"  
 (5. 23 조신일보)며 일축해버렸다.

② 상남 시사당청년학우회 창립대  
 회 명명록.

김기철씨가 이 창립대회에 참석하  
 면서 한결덕이라는 가명으로 기록한  
 것. 연합통신 기자가 심남 원지 취재  
 를 통해 직접 확인하여 전민연 발표에  
 앞서 보도한 것으로 그 신빙성은 의심  
 의 여지가 없다. 김기철씨가 기재한  
 면에는 다른 여러 사람의 격려사와  
 이름이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반증된  
 것이다.

③ 전교조 원주지회 개소의 명명록  
 이 자료는 전교조 원주지회에서  
 직접 한겨레신문사에 보내 공개한  
 필적으로 원본이 한겨레신문사에  
 보관되었다. 전교조 강원지부 교내위  
 원장 박대순씨가 직접 공개증언(5.  
 25. 한겨레)하고 있다.

김철이 이것을 조작이라고 주장하  
 기 위해서는 한겨레신문사와 전교조  
 들 모두 조작범으로 불아야 할 것이  
 다.

④ 대유공전 기고문

광주항쟁 10주년을 맞아 김기철씨  
 가 대유공전 학보에 기고한 50여  
 분량의 원고

⑤ 상남 민청련 업무원지 및 상황  
 일지

89년 9월 22일에서 90년 1월 31  
 일 사이에 김기철씨가 상남 민청련  
 교신부장으로 있으면서 쓴 일지. 그의

전정현 - 전교조학우회 노동조합 - 상남지회 - 지  
 ① 2월 21일 2층 2층 2층  
 "자녀는 시모결의대회"  
 2월 11일 2층 2층 2층  
 4. 4. 4. (가)  
 상안동지분배회 4. 모친회 결의대회  
 2월 6일 (가)  
 전농회 1월 1일 결의대회  
 여사대 (가)

② 2월 21일 2층 2층 2층  
 이 (가)  
 2월 11일 2층 2층 2층  
 4. 4. 4. (가)  
 상안동지분배회 4. 모친회 결의대회  
 2월 6일 (가)  
 전농회 1월 1일 결의대회  
 여사대 (가)

2월 21일	2층 2층 2층
2월 11일	2층 2층 2층
4월 4일	4. 4. 4. (가)
상안동지분배회	4. 모친회 결의대회
2월 6일	(가)
전농회	1월 1일 결의대회
여사대	(가)

상안동지분배회 결의대회, 모친회, 전농회 등 다양한  
 원본이 사용되어 있다.

③ 채무가서  
 김기철씨 수첩 내용에서 2에게  
 고유한 스타일을 갖고 있던 김기철씨는  
 4월 25일 3시 - 4시권에 기록된 '원시  
 참배'의 뜻을 차용하는 이해하지 못한  
 다(자료 2 참조).

명동성당 동성이 마바지에 걸려  
 무림 어떤 젊은이가 친민연 인권위원  
 장 서준식씨를 찾아왔다. 그는 김기철  
 씨에게 300만원이 차용되고 2월 1  
 8일까지 갚기로 한 채무가서 3장을 받았  
 으나 김기철씨가 2일까지 갚지 않고  
 다시 4월 25일까지 갚기로 했는데  
 김기철씨가 죽어버려서 찾아왔다는  
 것이었다. 그의 이름은 '오원식'이었  
 다. 이 채무가서의 필적은 유서필적과  
 똑같다.

서준식씨는 이 가서의 동성이 고인  
 을 목격해 한 김기철씨 초상화를  
 우리하고 이것을 친민연 선무자에게  
 맡기려고 구속되었다. 이것이 나중에  
 김기철씨 8차공판 때 재판부에 제출  
 되었다.

김철과 재판부는 이것을 '조작'으로  
 판단했다. 조작하러면 왜 하필이면  
 채무가서를 조작했는가?



1989년 9월 26일 토요일

전국 및 지역 동향  
 - 지역특위 (모선10시) 노중  
 - 공대차 대교차 실무차 영  
 중한 "타사" 어떻게 개명  
 (명칭 10부: 200)

상근자  
 @ 린세 방부, 사보성, 문국, 김기철, 이진

회의  
 1. 이하병원, 노보환에 방문  
 \* 문국방 (오류 주시), 문 글씨가 김기철씨의 필적

10. 각 서  
 문인 김기철은  
 하위서 기미, 인공상방만  
 원은 2기, 18일 자지 역사개  
 람있습니다.  
 만약 권리 못한 경우  
 기어한 처분은 감수한것은  
 약속합니다  
 1991. 2. 13  
 김기철 대표

①) 주초 동우전대 하내 쪽역사기  
 기록물.  
 동우전대 사건 당시 현지조사부  
 하면서 녹음한 것을 나중에 검토 폭어  
 쓴 것. 서준이 인권위원장이 김기철씨  
 의 녹취원고(연필로 쓰여져 있음)  
 가 미흡하여 다시 테이프를 들으면서  
 그 원고 위에 스스로 검은 색 하이테  
 크펜으로 가필유 한 것으로서 서준식  
 씨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또한 김기철씨가 홍성준씨와 함께  
 작업을 하여 그 녹취노트는 홍씨의  
 글씨로 된 부분도 들어 있어 홍씨가  
 법정에서 그 노트의 글씨가 김씨의  
 것임을 확인했음에도 재판부는 홍성  
 준씨의 말을 믿지 않았다.

III.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 김기철씨는 과연 유죄인가? (1) -

1심 재판부가 김기철씨에게 유죄판  
 선고한 가장 중요한 근거는 국가수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의 감정이었다.  
 그러나 1심 재판과정에서 국가수는  
 그 감정의 비과학성·비공정성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김형영은 이번  
 국가수 허위감정 의혹사건의 '주인  
 공'으로 현재 구속중에 있다.

1. 감정기준의 모호함.  
 국가수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은  
 1심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유죄감정  
 에서 동일한 필적이라고 판단할  
 때는 동일필적 비율이 70% 이상일  
 때, 상이한 필적이라 판단할 때는  
 동일필적 비율이 45% 이하일 때라고  
 증언하고 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마땅히 위와 같은 화환상의 비율을

김기철... 수감처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누구의 말을 들었는지...  
 김: 반대로 한문이든...  
 동아리: 지도...  
 김: 모든 것은...  
 다...  
 김: ...  
 김: ...

여기서 나오느냐..... 모두 꺼져버려.....'의 작은 글씨는 서준식씨가 가필한 부분.

언기 위한 사전 조사과정이 있어야  
 한 것이다. 그러나 그가 제출한 감정  
 시에는 어디에도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주 2의 감정소견서는 단지 "현미  
 경, 확대부영기, 비교확대기, 고정밀  
 지인 필의 구성과 매자의 형태...  
 직선적이고 곡선적인 필의 특성 및  
 숙련과 비숙련 차이, 자음과 모음의  
 특징, 개인의 특성, 잠재성 등 유  
 주시검사하였음"이라고 인제되어  
 있는 양식서에 간단한 감정결과와  
 10배 가량의 글씨 확대사진이 붙여져  
 있을 뿐 구체적인 감정과정이나 특정  
 글씨에서 이런 감정사항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전혀 설명  
 이 없다. 그는 법정에서 이번 감정  
 서 이 비율이 어떤 필적에서 몇%로  
 나타나 있는지는 변호인 질문에 대답  
 하지 못한 것은 당연했다.  
 이와 달리 김기철씨와 김기철씨의  
 필적이 근본적으로 상이하다는 결론  
 을 내린 일련된 감정이 오히려 오히려  
 의 감정시에는 라, 모, 비의 필법과  
 모음의 횡선필법 등의 차이점이 상세  
 히 설명되어 있으며, 이동(異動)비율  
 까지 정확히 계산된 설명이 붙어 있  
 다. 오히려 법정에서 특정 자·모음  
 의 숫자계산 등에서 착오가 있었음을  
 시인했으나 이 오류는 감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오류는 아니

었다. 김형영의 경우 감정의 구체적  
 근거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니시  
 와 달리 세부사항에서의 '뜨림 필기'  
 를 면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법정  
 서의 김형영 증인신문 과정은 2의  
 검사가 부당한 연락을 취하면서 2의  
 감정의 의도에 따라 감정했음을 2의  
 내는 대목이 눈에 군데 있다. 주 2가  
 "감정을 비롯한 누구의 조인이나  
 설명을 들은 바 없이 양심에 따라"  
 감정했음을 의심케 하며 검사의 주  
 에 따라 결론부터 정해놓고 동일필적  
 으로 판단해야 할 것은 비순해 보이는  
 근거를, 상이한 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은 달리 보이는 글씨를 확대 촬영  
 하여 비교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강한 의혹을 갖게 되는 것이다.

2. 업무일지는 조작되었는가?

-김형영의 위증-

업무일지(④)는 고 김기철씨가 속에 있는 권민권 사회국에서 중요한 행사나 사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던 문서이다. 김기철씨가 분신자살하자 김형은 권민권에게 김기철씨의 필적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권민권은 특별한 별거없이 김기철씨와 관계 있던 사회국 업무일지를 김형에게 제출했다. 김형은 이 업무일지가 유서 필적과 같다는 국가수의 감정정보를 받고, 업무일지를 김기철씨가 마치 김기철씨가 쓴 것처럼 조작하여 제출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업무일지는 권민권 사회국원 3인이 작성한 것이었다. 총무국 소속인 김기철씨는 물론 김형까지도 처음에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김형은 6월 26일 김기철씨가 자진출두한 후 조사 때마다 유서와 업무일지를 놓고 양자가 동일인이 쓴 것이고, 유서 필적이 김기철씨의 필적과 같다고 어지를 부리면서 업무일지도 당연히 김기철씨가 조작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그러다가 91년 7월 5일 뜻밖에도 업무일지가 세 사람에게 의해 작성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즉 감사의 반복된 추궁에 업무일지를 자세히 살펴보던 김기철씨가 업무일지의 뒷면 장은 권민권 동료인 이동진씨의 글씨이고, 둘째 장의 중간에 쓰여진 "4/19 4.19혁명기념대회 준비", 업무일지의 글씨임을 발견한 것이다. 이와 같이 양 장이 이동진씨, 둘째 장의 일부가 업무일지가 쓴 것으로 밝혀지자 김형은 유서 당황했다. 이미

이때는 국가수가 업무일지는 유서와 동일인이 쓴 것으로 감정한 후였기 때문이다.

어떻게 되자 김형은 이번에는 업무일지를 대필 회의자로 보고 연행하여 조사하기 시작했다. 적어도 이 시점에 이르러 김형은 업무일지가 김기철씨에 의해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던 것이다. 김기철씨로 이 업무일지는 김기철씨의 필적을 밝혀주는 가장 적격자이기도 한 당당한 자료가 되어버렸다.

이와 관련하여 김기철은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하루는 부장님께서 화가 난 표정으로 들어오더니 승의여전 학생들이 김기철의 필적이라 하여 가져온 메모와 무슨 노트를 책상에 내던지며 '봐라, 똑같지 않느냐'라고 소리치시 그 노트를 보니까 업무일지의 노트였고, 유안으로 보기에 승의여전 메모의 글씨와 너무나 같아서 한동안은 '업무일지가 유서를 대필한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만약이면 이때 김형 스스로도 김기철씨에게 유서대필 혐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업무일지를 유서대필의 진범으로 단정하고 '현상금을 걸고' 잡으려다닌다. 결국 업무일지는 7월 6일 강제 연행되어 사실상의 유서대필 피의자로만 이동진 특독한 신문과 추궁을 당해야 했다. 이때는 김형이 이미 5월에 국가수 감정결과를 근거로 김기철씨가 유서를 대필했다고 공표하고 난 훨씬 후였다. 그러나 결국 혐의사실이 입증되지 않자 업무일지를 김시범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구속해버렸던 것이다. 결국 업무일지는 조작된 것이 아니

었다. 김형 주심대로 동일 필적으로 무어 어떻게든 유서와 같이 보이라고 하는 사람이 3인의 필적이 들어있는 것은 김기철씨의 필적으로 재촉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김형은 자신이 만든 유가기에 다시 한번 스스로가 권려되고 만 것이다. 국가수는 "유서와 권민권의 업무일지 필적이 동일한 필적으로 사료됨"이라고 감정했다.

이에 대해 김형영은 처음부터 업무일지가 3인에 의해 작성된 것을 김사로 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유서와 동일한 필적이 업무일지에 있느냐"에 주안을 두었고, 업무일지에 다른 사람의 필적이 감정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다"라고 하면서 감정서에서는 이와 같이 3인의 필적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유서와 같은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업무일지와 유서가 동일 필적이라고 썼다고 형성수첩하고 있다.

그러나 김형영의 이 말은 명백한 위증이다. 왜냐하면 김형도, 국가수도 처음 업무일지를 간대받고부터 감정 의의할 때까지 업무일지가 3인에 의해 작성된 것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형은 7월 4일까지 김기철씨에게 업무일지를 들이대며 '업무일지를 내가 김기철이 쓴 것처럼 조작한 것 아니냐'고 그토록 자백을 강요했던 것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3인이 작성한 사실을 알고도 유서와 업무일지가 동일하다고 감정했다는 김형영의 증언은 업무일지에 의해 동연히 드러난 사실을 어떻게든 감춰보려는 김형과 국가수의 사전담합에 의한 명백한 위증인 것이다.

3. 수첩은 조작되었는가?

5월 28일, 권민권이 김형에 수첩을 제출 (Ⅱ, 쓴아지는 필적 증거 등, 김기철 수첩 ⑦(8)(9) 참조)한 직후부터 김형은 이 수첩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감정이 심시되기도 권이었다. 그러다가 김형이 고역스러운 '필적'은 '생에서 필적으로 미리 개되었을 무렵 (Ⅱ, 쓴아지는 필적 증거 등 참조)인 5월 25일, 즉 살상관대 김기철 양이 죽은 바로 그 날에 김형은 국가수의 전취신 감정을 앞세워 대법적으로 수첩이 조작되었다고 발표해버릴과 동시에 김기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수첩이 김기철씨가 쓴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김형이 찾아낸 것이 바로 수첩 전취신이었다. 국가수의 수첩전취신 불일치 판정은 수첩에서 떨어져 나온 수첩과 몇 장이 고 남아있는 잔류부분은 몇 장인지, 떨어져 있는 부분의 순서와 대조할 남아 있는 잔류부분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김형영은 법정에서 변호인의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하나도 대답할 수 없었다. 단지 전취신 부분을 확대한 사진만 제시되어 있었을 뿐이다. 이것은 국가수의 감정이 그럴거나 무책임한 것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김형은 수첩을 김기철이 썼다는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국가수의 위위감정을 동원한 것으로 부 수첩에 없다.

IV. 홍성은씨의 진술

-김기철씨는 과연 유죄인가(2)-

1심재판부가 김기철씨에게 유죄를

선언한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는 홍성은씨의 진술이었다. 홍성은씨는 지나히 평범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이 엄청난 정치적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참담하게 살해 입은 이 사건의 대표적 희생자 중 한 사람이다.

홍성은씨는 김기철씨가 김기철씨에게 소개시켜준 단국대 후배이다. 홍성은씨는 김기철씨의 분신 전후의 정황과 관련하여 5월 13일 검찰에 불법 연행 5월 17일까지 집중적인 조사당 받았다. 홍성은씨는 처음(검찰 1차 진술서)에는 추후도 유서가 대위되었다는 의심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사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불법감금 당해되는 날에 홍성은씨의 진술이 의혹과 혼돈 속에서 고통스럽게 그리고 극적으로 변해감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홍성은씨는 왜 처음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되었는가?

홍성은씨가 유서가 대위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김형이 김기철씨의 필적이라고 제시한 문서가 너무나 유서와 흡사했기 때문이다. 그 문서는 김기철씨의 집에 서 김형이 압수한 '수신: 김철호, 발신: 김명호'으로 된 것이었다. 홍성은씨는 "유서와 이 문서가 가장 흡사하게 비슷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김형 또한 이 문서를 자체 감정을 통해 유서와 동일하다며 수첩장의 사건을 찍어 사진첩을 만들 때까지 했다. 그러나 결국 이 문서는 김기철씨의 것이 아니었음이 밝혀졌고, 김형도 나중에 이를 시인했다.

김형이 의도했든 아니든 오인했다면 홍성은씨는 김기철씨가 쓴 것이라며 제시된 이 문서로 인해 김기철씨가 유서를 대위했음에도 모른다는 생각

을 하게 된 것이다. 홍성은씨는 이때부터 김기철을 수 없는 의혹과 혼돈 속에서 김기철씨와의 모든 관계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 물론 이러한 홍성은씨의 왜곡된 의식변화 과정은 김시의 중요한 유도 신문과 감호에 의한 것인 것은 두말한 것도 없다. 그렇다면 홍성은씨의 진술은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가?

1. 5월 7일 밤의 전화

홍성은씨는 김기철씨가 분신하기 전날인 5월 7일 저녁 김기철씨와 만난 후에, 김기철씨에게 전화한 것이다. 당시 홍성은씨는 김기철씨가 전화를 받자 "기철이 형, 왜 사무실 안다 왔느냐, 어디 아프냐"고 묻었더니 "성은아! 성은아!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하기에 아마도 5월 5일에 학교 동문인 김진수씨 생일모임에서의 카유으로 인한 한수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고 "괜찮다"고 말한 뒤 "기철씨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해 달라"며 김기철씨에게 미안한 마음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김형은 이 진술을 토대로 김기철씨가 김기철씨의 분신사실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친구인 홍성은씨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형이 이러한 주장은 김기철씨의 혐의사실을 뒷받침하기 보다는 오히려 김기철씨의 건백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

홍성은씨는 왜 김기철씨에게 전화를 했을까? 홍성은씨는 "내가 죽으면 우리 집 전화번호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김기철씨에게 전화하여 알려주라"는 김기철씨의 부탁이 있었







- 업무일지가 조작되었다.
- 수첩이 조작되었다.
- 보도소 접할될 도장이 찍힌 강기훈씨의 편지를 받을 수 없다.
- 일본인 감정가인 오니씨의 감정은 믿을 수 없다.
- 홍성은씨의 1차 검찰조사서는 유도된 2차 진술조사.

검찰은 이 모든 의혹과 상상력의 산물들을 고고한 언론플레이를 통해 국민의 눈을 현혹시키 왔다.

이와 별반 다를 것 없는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친절하게도 일일이 설명을 덧붙여 인정해 주면서, 국가수감질에 대한 변호인측의 문제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국가수를 변호했다.

“①……이 사건 필적감정에 있어 김형영 등 감정인들이 검찰의 압력을 받아 그 의도대로 감정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김형영은 검찰이나 다른 기관에서 압력을 받음이 없이 소신껏 감정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필적감정의 책임감정인 김형영은 현재 국가수문서분석실장으로 재직하면서……감정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판정된 것이 한 건도 없었으며,……동인유 한금 필적감정의 최고권위자라 볼 수 있고, 또한 신뢰할 수 있는 감정인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③……이 사건 필적감정이 세심하고 신중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④ 업무일지 감정에 있어서도…… 동일필적이 있으나에만 주안을 두고 감정한 결과 동일필적이 발견되어 유서와 업무일지의 필적이 동일하다

고 감정한 것이 업무일지상의 모든 필적이 유서의 필적과 동일하다는 뜻으로 감정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위 진술이 수감이 가는 점…… 동유 중합하면 그 감정은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신뢰할 수 있는 감정이라고 부어 타당하다 하였다.”

판결문에서 1심 재판부가 ‘최고권위자,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감정’ 운운하며 감정인 김형영씨에게 보내 극도의 찬사는 찬사를 받은 바로 그 장본인이 최고 국가수의 뇌물수수 및 허위감정 의혹사건으로 인해 구속됨으로써 무색하게 되어버렸다.

또 1심 재판부는 홍성은씨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진술 당시의 상황과 진후 과정에 대한 진중하고 고려없이 검찰측의 해괴한 논리를 그대로 인정해 주었다.

“이 2차 진술(홍성은씨가 검찰에서 받은 2차 진술조사-홍성은씨의 수첩에 강기훈씨가 김기철씨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써주었다는 진술, 검찰은 이것을 강기훈씨가 검찰의 필적자인

유 유도하기 위해 써준 것이라고 주장함. 그러나 홍성은은 1차 진술시 이 수첩의 메모를 김기철의 필적이라며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등에 관하여 변호인들은 당시 홍성은이 장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은 끝에 김기철과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해 의혹과 혼돈 속에서 진술한 것이므로 그 진술은 사실과 다르고 1차 진술이 맞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홍양 스스로도 그후 피고인과의 대질신문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서 ‘누가 썼는지 기억이 확실치 않다. 5·10 피고인이 써주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고 하면서, 그 진술을 반복하였다.……피고인과의

대질신문이나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있는 법정에서는 피고인이나 그 예인인 이영미에 대한 의리상 거짓진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이 반복한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결국 검찰 2회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라고 판단된다.”

이것은 1심 재판부가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땅에 내뺄게하고 권력의 요구에 맹종하는 추한 모습을 역력히 드러내는 것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즉 판사 자신이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증인신문을 한 증인에게 직접 묻고 들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불법 언행되어 강압적 분위기와 고립된 상태에서 비공개적으로 행해진 검찰에서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라는 판사의 태도는 사법부가 더 이상 사법부이기를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3. 생선은 고양이에게 맡겨야 한다는 1심 재판부의 주장**

1심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측은 김기철씨가 쓴 각종 필적자료 가운데 14종을 제출하였다. 각각의 필적에 대해 필적의 제출자들이 범정에 나와 그것이 김기철씨의 것임을 증명하였다. 그 증언들은 대부분이 강기훈씨를 소위 ‘유서사건’ 이전에는 몰랐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자료의 실체에 대한 판단보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린다든가, 자료의 제출시기 등 사소한 사항을 문제삼아 모든 증거를 배척해버렸다. 또한 1심 재판부는 증거배척의 이유로 이 자료들과 유서를 대비한 필적감정 결과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이는 재판부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막중한 사법적 판단기능

을 포기한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변호인측이 제출한 김기철씨 필적(특히 홍위체)과 유서와는 명백히 다른 강기훈씨의 개관적 자료(보도소 접견원인이 찍힌 옥중서신)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1심 재판부는 이들 자료를 다시 국가수에 감정한 것을 변호인에게 촉구함으로써 자신의 판단회피의 책임을 변호인에게 전가하려 했다. 이러한 재판부의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1심 재판부에서 국가수는 명백히 허위감정을 했음이 드러났고, 이를 감추기 위한 위증은 계속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수에 다시 감정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 새 생선을 내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1심 재판부는 국가수 외의 공인감정기관이 없다면 생선은 고양이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4. 고개숙인 1심 재판부**

91년 12월 20일 오전 10시, 12회에 걸친 소위 ‘유서대판 사건’의 선고공판이 있었다. 이날 공판에서 1심 재판부는 재판의 전과정에서 보여준 근엄한 태도와는 달리 시종 방정척과 피고인측을 애써 외면하였다. 노원동 부장판사가 읽은 판결요지에서 강기훈씨의 유죄가 인정될 때마다 방청석에서의 이에 대한 항의와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전에는 방청석의 소란에 대해 유난히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던 재판부가 이날만큼은 묵묵히 판결문을 읽어내리길 뿐이었다. 두 명의 배석판사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아예 고개를 숙인 채 등 등을 돌렸다. 또한 부장판사 노원동은 재판의 말미에서 “우리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절대적 진리에 부합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나타난 증거로 판단할 때 유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하였다. 또한 공판이 끝난 후에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제3자가 나타나 내가 유죄를 썼다고 양심선언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진실을 밝혀주기를 스스로 기쁘고 유죄판결을 내린 자신의 심정을 솔직히 시인하고 있다.

강기훈씨는 재판부의 선고가 내리자 직접 자리에서 번민이어나고함을 지르며 재판부에 항의했다. 그의 의미나 항변은 방청석에서 터져나온 분노에 찬 항성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난 어느 일관적은 강기훈씨의 의미나 항변을 어떻게 전하고 있다. “관위, 기지각은 O류아! 2마위 재판은 집어 치워!”(동아일보)

이는 강기훈의 항변만이 아닌 기각된 포항한 모든 방청객, 아니 강기훈의 양심과 진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이었을 것이다.

**신 문**

[1992.3.14(수)충주신문(사)판] 제1113호

**강기훈씨 선고공판정 이모저모**

필적하다 할수없는 의미  
○-배석판인 노원동 부장판사는 이날 20분가량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판결요지를 낭독하고 항변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인 강기훈씨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시종 고개만 숙인 채 무거운 표정을 띠고 있었다.

**재판장, 강씨 외면한채 시종 무거운 표정 방청객들 판결문낭독되자 유죄적감 '슬렁'**

방청객 1백여명은 재판이 시작되자 손을 죽이며 재판장의 판결요지 낭독을 듣다가 유죄가 선고되는 것을 알고는 슬렁이 시작. 선고를 내린 재판부가 필적하기 위해 읽어주자 항변장은 항말 없으며 휘파람 "관청문이 모호한데 어떻게 유죄를 내리"며 다 입리를 벌였다"이며 고함을 울며 항변하며 재판장

**강씨 어머니 필적자실**

○-이날 공판에는 강씨의 어머니 권대현(57세), 동생 김희(26세)로 구성된 변호사팀과 동 가족들이 대거 나와 필적자실까지 지켜 보았다.

**집합, 선고항에 불만**

○-집합은 강기훈씨의 유죄가 선고되자 유죄는 당연하다"는 안도의 탄성을 함께 재판부의 항변에 큰 불만을 표시. 이 사건 수석법정인 서울지법 형사부 김진숙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사실관계에 대해 충분히 신중할 것은 자명"이라며 선고공판이 끝난 뒤는 3분여동안 자리에 앉아있었다.



오니시 요시오 감정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국과수, 그 실상을 파헤친다

1949년 와세다 대학 예술학과 박사과정 수료
1951년 일본 공시청의 회계에 의해 필적감정
1974년 일본 공시청 담당 100주년 기념으로 필적감정부분 개인 감사장 수상
1989년 주일공인대학 장차(이승우, 배승락) 장년회직,
한세 장상인협회 대표장정인.

한국기록교협회, 아시아기록협회, 일본기록교 협의회로부터 필적감정을 의뢰받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달하였으므로 이에 회답합니다.

1991년 7월 9일
東京都杉枝區上 3-13-21
東京國立博物館名譽館員
감정인: 大西芳雄(오니시 요시오)
한국기록교협회,
아시아기록협회,
일본기록교협회 귀 바

감정 사항

1. 하기(下記) 1의 유언서의 필자는 누구인가?

- ① 유언서 2통(사본)
② 수첩 4장(사본)
③ 강기훈 본인의 유증으로부터의 필적 2통
④ 강기훈 본인의 최근 필적 1통
⑤ 송의여전 메모 1통
⑥ 방명록 노트(연필로 표시한 부분) 1통
⑦ 상황일지(연필로 표시한 부분) 1통
⑧ 봉투(연필로 표시한 부분) 1통
⑨ 이력서 1통(사본)

위의 ②와 ⑤-⑧의 필적은 김기철의 것이다.
감정 주문 및 이유의 본문에 나오는 감정자료는 위에 나오는 ①안의 숫자로 표시하기로 한다.

감정 주문

① 유언서의 필적은 ② 및 ⑤-⑧ 필 김기철의 필적과 특색이 공통되어 있으며 김기철이 직접 쓴 것이다. 강기훈이 쓴 것은 아니다.

감정이유

(1)의 2통의 유언서는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다. 2통의 유언서의 필적은 계선(界線)이 없는 백지에 만든 필과 같은 필기구를 사용하여 횡서(橫書)로 쓰여져 있으며, 맨끝에 가가 서명이 되어 있다. 횡서의 가 행을 보면 2통 모두 가로 일직선으로 쓴 것과 필기를 상하로 유리기나 내린 것 등 도합 3가지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가 문법(文節) 및 가 행간의 간격도 넓고 좁음의 차이가 명확히 나타나 있다.

가 문자는 해서(楷書)체가 아니라 속필(速筆)을 사용한 행서(行書)체로 되어 있으며 가 자획선(字劃線)에 주저함의 흔적이 전혀 없어 선(線)에 놀림이 있는 것이 인정된다.

가 문자의 견색을 보면, 종선(縱線)을 하방(下方)으로 길게 늘이는 필법(筆法)이 보이며, 일정한 길이로 가지런하게 되어 있지 않고 들쭉날쭉하게 쓰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가 자획선의 필법을 보면 횡선(橫線)에서는 직선적 필치(直線的筆致)로 수평으로 쓰는 필법을 다용(多用)하고 있다. 종선에서는 직곡선적 필치(直谷線的筆致)로 수직방향 이외에도 좌하방(左下方)으로 사선(斜線)을 그어내리는 두 가지 종류의 필법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

감정자료의 김기철이 쓴 ②의 필적은 수첩 4장 중에서 앞의 2장은 전화번호부, 뒤의 2장은 일기장과 같은 것으로, 여기에 볼펜류의 필기구로 그때그때 횡서로 가 문자를 남김하게 작게 쓴 것이다. 가 문자군(文字群)은 수평이 아니

면 극단적인 끝유림(역주: 문장 밑에 가 유라가도록 쓴 것)으로 쓰여져 있으며, 해서(楷書)체 또는 행서(行書)체로 흘려 쓴 것으로, 한번 쓴 것을 지우고 고쳐 쓴 흔적이 나타나 있다.

자료 ⑤의 필적은 김기철이 송의여전의 총학생회장에 배 준 김희의 일정 메모로서, 볼펜을 사용하여 급히 쓴 것으로 가 문자를 속필로 행서체로 흘려쓰고 3개조(組) 중에서 최초의 2개조를 극단적인 끝유림으로 썼으며 최후의 한 조는 원만한 가도로 쓰고 있다.

자료 ⑥의 필적은 방명록 용의 노트에 볼펜으로 속필을 사용하여 비교적 또박또박한 행서체로 쓰여져 있다.

자료 ⑦의 필적은 1989년 9월 25일의 행동을 일지로서 쓴 것을 가 문자를 정성껏 해서체로 쓰고 있다.

자료 ⑧의 필적은 봉투 뒷면에 사인펜으로 5문자를 필서로 쓰고 있다.

자료 ⑨의 이력서 필적은 해서체를 사용하여 정성껏 쓰여져 있다.

김기철이 쓴 가 문자의 필법을 보면, 횡선에서는 직선적 필치로 수평으로 쓰는 필법을 다용하며 종선에서는 직곡선적 필치로 수직과 좌하방으로 경사하는 두가지의 필법을 혼용하고 있다.

자료 ③과 ④는 강기훈의 옥중에서 쓴 2통의 봉합업서의 필적과, 1992년 5월 21일 편지지 1장의 앞뒤에 쓴 필적의 두 종류이다.

옥중에서 쓴 편지는 봉투의 소인이 1987년 6월 8일과 동년 5월 7일의 것으로 어느 것이나 계선이 있는 편지지에 볼펜으로 횡서로 가 문자가 쓰여져 있다. 별도로 급년 5월 21일에 계선이 있는 종이에 볼펜으로 횡서로 쓴 것은 어느 것이나 속필로 정성껏 행서로 쓰여져 있다.

3개조의 가 문자의 배자(配字)를 보면, 작성연대와 관계없이 총획 10mm의 크기로 크고작은의 흐트러짐이 없으며, 감정물건(鑑定物件)과 같이 필기를 상하로 치우치게 쓰는 것이 아니라 가로 일직선으로 쓰여져 있고, 문법간의 간격도 일정한 간격으로 정연하게 되어 있다.

가 문자의 필법을 보면, 종선에서는 직선적 필치를 사용하여 수직과 우하방(右下方)으로 경사하는 필법을 사용하고 있고, 종필(縱筆)을 가압하지 않고 빠르게 내리는 필법을 다용하고 있다.

이들 일련의 필적 중에서 특히 고유필법(固有筆法)을 사용하여 형상성(恒常性)을 나타내는 개성표현(個性表現)

現)이 명확히 나타나 있는 것으로 이하의 점을 들 수 있다.

1) 「사선(斜線)」의 필법에 관하여

가 문자의 최초의 재입회(新-劃)의 짧은 사선의 필법을 기본적으로 「ㄹ」 「ㄴ」 「ㄷ」 「ㄹ」 「ㄴ」 「ㄷ」와 같이 일반적으로 5가지로 분류되며, 이 사선을 직선·곡선적 필치로 길고 짧게 쓰며, 여기에 필압의 가압이 작용하여 매우 변화된 필법을 사용하여 개성표현이 잘 나타나는 것이 다.

이 개성표현의 필법의 구별을 찾아내는 것이 감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김기철이 쓴 자료 ②의 4장 중에서 사선의 필법을 「ㄹ」와 같이 기원을 가압하여 그대로의 필압을 유지한 채 우하방으로 짧게 내려 긋는 필법이 44개조 중 34조에 나타난다. 반대로 「ㄹ」과 같이 우측에서 좌하방으로 동일 필압의 사선으로 내리는 필법이 44개조 중 10개로 나타나 있다. 양자의 필법을 혼용하고 있다. 자료 ⑥에서는 우하방으로 내려긋는 사선이 5개조의 사선 중 1개조가 있을 뿐으로 나머지 4개조는 「ㄹ」과 같이 좌하방으로 내려긋는 사선의 필법을 쓰고 있다. 자료 ⑨에서는 가 문자의 수가 비교적 적으며, 우하방으로 사선으로 내려긋는 필법을 3개조에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김기철이 쓴 68개조의 사선 중에서 우하방으로 내려긋는 사선의 필법의 52개조, 반대로 좌하방으로 내려긋는 사선의 필법이 16개조나 되어 양자의 필법을 혼용하여 쓰는 고유필법(固有筆法)이 확인된다.

자료 ③의 강기훈이 쓴 2통의 편지 중에서 전사(前書)에는 봉투를 포함하여 36개조, 후자는 봉투를 포함하여 40개조, 자료 ④에는 88개조의 사선이 있다. 도합 167개조의 사선의 필법을 「ㄹ」과 같이 우하방을 향하여 기원에서 가압한 후 빠르게 내리는 필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술한 김기철의 사선의 필법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함을 알 수 있다.

감정물건의 유언서의 사선의 필법을 보면, 전체에 있는 26개조 중에서 「ㄹ」과 같이 우하방으로 내려긋는 필법이 6개조, 반대로 「ㄹ」과 같이 좌하방으로 내려긋는 필법이 20개조나 된다. 둘째줄에서는 16개조 중에서 「ㄹ」과 같이 우하방으로 내려긋는 필법이 5개조, 반대로 좌하방으로 내려긋는 필법이 11개조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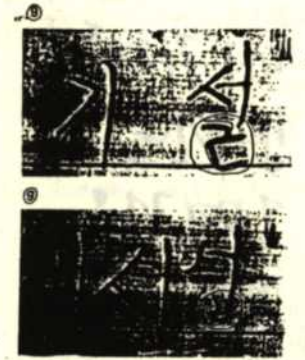


내용이 상이한 2장의 유언서의 사선의 필범을 보면, 42개조 중에서 우회법으로 내어놓는 필범이 11개조, 빈대 이 필범이 31개조로 각기 혼용되고 있으며 자료에 등 김기훈의 사선의 필범과 특색이 공통되고 있다. 김기훈의 사선의 필범과는 명확히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김기훈의 사선 필범  
1. 김기훈의 사선  
2. 김기훈의 사선  
3. 김기훈의 사선  
4. 김기훈의 사선  
5. 김기훈의 사선  
6. 김기훈의 사선  
7. 김기훈의 사선  
8. 김기훈의 사선  
9. 김기훈의 사선  
10. 김기훈의 사선  
11. 김기훈의 사선  
12. 김기훈의 사선  
13. 김기훈의 사선  
14. 김기훈의 사선  
15. 김기훈의 사선  
16. 김기훈의 사선  
17. 김기훈의 사선  
18. 김기훈의 사선  
19. 김기훈의 사선  
20. 김기훈의 사선  
21. 김기훈의 사선  
22. 김기훈의 사선  
23. 김기훈의 사선  
24. 김기훈의 사선  
25. 김기훈의 사선  
26. 김기훈의 사선  
27. 김기훈의 사선  
28. 김기훈의 사선  
29. 김기훈의 사선  
30. 김기훈의 사선  
31. 김기훈의 사선  
32. 김기훈의 사선  
33. 김기훈의 사선  
34. 김기훈의 사선  
35. 김기훈의 사선  
36. 김기훈의 사선  
37. 김기훈의 사선  
38. 김기훈의 사선  
39. 김기훈의 사선  
40. 김기훈의 사선  
41. 김기훈의 사선  
42. 김기훈의 사선

김기훈의 사선 필범  
1. 김기훈의 사선  
2. 김기훈의 사선  
3. 김기훈의 사선  
4. 김기훈의 사선  
5. 김기훈의 사선  
6. 김기훈의 사선  
7. 김기훈의 사선  
8. 김기훈의 사선  
9. 김기훈의 사선  
10. 김기훈의 사선  
11. 김기훈의 사선  
12. 김기훈의 사선  
13. 김기훈의 사선  
14. 김기훈의 사선  
15. 김기훈의 사선  
16. 김기훈의 사선  
17. 김기훈의 사선  
18. 김기훈의 사선  
19. 김기훈의 사선  
20. 김기훈의 사선  
21. 김기훈의 사선  
22. 김기훈의 사선  
23. 김기훈의 사선  
24. 김기훈의 사선  
25. 김기훈의 사선  
26. 김기훈의 사선  
27. 김기훈의 사선  
28. 김기훈의 사선  
29. 김기훈의 사선  
30. 김기훈의 사선  
31. 김기훈의 사선  
32. 김기훈의 사선  
33. 김기훈의 사선  
34. 김기훈의 사선  
35. 김기훈의 사선  
36. 김기훈의 사선  
37. 김기훈의 사선  
38. 김기훈의 사선  
39. 김기훈의 사선  
40. 김기훈의 사선  
41. 김기훈의 사선  
42. 김기훈의 사선

2) 「ㄹ」의 필범에 관하여  
자료의 문서 중에서 「ㄹ」 중의 받침 「ㄹ」의 필범을 보면, 김기훈이 쓴 ㉔에는 14개조, ㉕에는 4개조, ㉖에는 3개조, ㉗에는 1개조, ㉘에는 4개조 등 합계 26개조가 있으며 모두가 「ㄹ」과 같이 제2획의 횡선을 생략하여 제 1, 2, 3획을 한 획으로 단번에 쓰며 제3획을 끝유림의 횡선으로 배치 유리는 필범을 사용하고 있다.  
김기훈이 쓴 받침 「ㄹ」은 ㉔에 58개조, ㉕에 84개조가 있으나 모두가 「ㄹ」과 같이 제2획의 횡선을 가림하는 필범을 사용하고 있다.  
김기훈이 쓴 유언서의 「ㄹ」문자의 필범을 보면, 첫째장에 20개조, 둘째장에 14개조가 있는데, 모두가 「ㄹ」과 같이 제2획의 횡선을 생략하고 단숨에 쓰고 있어 김기훈의 필범과 특색이 공통되고 있으며, 김기훈의 필범과는 상이함이 확인된다.



김기훈의 사선 필범  
1. 김기훈의 사선  
2. 김기훈의 사선  
3. 김기훈의 사선  
4. 김기훈의 사선  
5. 김기훈의 사선  
6. 김기훈의 사선  
7. 김기훈의 사선  
8. 김기훈의 사선  
9. 김기훈의 사선  
10. 김기훈의 사선  
11. 김기훈의 사선  
12. 김기훈의 사선  
13. 김기훈의 사선  
14. 김기훈의 사선  
15. 김기훈의 사선  
16. 김기훈의 사선  
17. 김기훈의 사선  
18. 김기훈의 사선  
19. 김기훈의 사선  
20. 김기훈의 사선  
21. 김기훈의 사선  
22. 김기훈의 사선  
23. 김기훈의 사선  
24. 김기훈의 사선  
25. 김기훈의 사선  
26. 김기훈의 사선  
27. 김기훈의 사선  
28. 김기훈의 사선  
29. 김기훈의 사선  
30. 김기훈의 사선  
31. 김기훈의 사선  
32. 김기훈의 사선  
33. 김기훈의 사선  
34. 김기훈의 사선  
35. 김기훈의 사선  
36. 김기훈의 사선  
37. 김기훈의 사선  
38. 김기훈의 사선  
39. 김기훈의 사선  
40. 김기훈의 사선  
41. 김기훈의 사선  
42. 김기훈의 사선







### 마각을 드러낸 '국립'과 '과학'



지난 2월 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사원이 사설감정원과 견학, 거액의 뇌물을 받고 자문, 인감 등의 허위감정을 해온 사실이 폭로되어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사건은 17년 동안 계속되어 온 대진지역 유적들 사이의 알력과 송사에 따른 감정비용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싸움의 한 당사자인 조병길씨의 국과수 감정비리에 대한 끈질긴 추적은 이 사건을 정국문예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조병길씨는 살해된 우두머리인 이세용씨가 사설감정원과 국과수를 겪고

전문적으로 재산에 관한 분석을 위조하고 있다는 실증을 갖고 오랫동안 농성기를 풀려 후대하여 사설감정인들을 찾아다니며 감정을 의뢰하는 척 열심히 국과수와의 관계를 맺던 것입니다. 테이프의 분량은 약 6시간입니다.

그는 이것을 MBC에 제보했으며, 그에 따라 자재적으로 추적을 받았던 MBC는 17시간 분량의 비디오 촬영을 중지했습니다. 뉴스 화면으로 공개된 것은 그 중 1-2%에 불과하며, 취재한 기자 밑에 의하면 그것은 "반드시 가장 중요한 부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공개된 것만 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가령 이-사설감정인이 소송관계각의 부탁에 따라 이들을 국과수에 인감해 주면서 300-500만원을 국과수 직원에게 건네주고 자신은 전체 탐탁액수의 20% 가량 받기까지 여러 차례 했다는 등 참으로 생생한 사례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문으로만 돌았던 이야기들, 즉 무서워했음에도 재산용 문명 빼앗기고 억울해서 고소하면 다시 국과수에서 똑같은 감정결과가 나와 이걸없이 무고죄로 감옥살이를 해야 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실화'로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국과수는 오랫동안 재판의 왕, 아니 폭군이었습니다. 국과수의 감정을 검증할 또다른 '국립'과 '과학'이 없기에 재판부는 언제나 국과수의 판단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원이 눈으로 보아도 분명히 위조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이룰 수 없이 알고 속아왔던 것입니다.

이번 국과수 허위감정사건의 '주인공'은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씨. 육안으로 보아도 감을 수 없는 고 김기철원사의 유서와 강기훈씨의 필적을 "간다"고 우겨댄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그는 80년에 허위감정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받았지만 결국 같은 국과수 동료직원이었던 이인환씨(이번 사건에서

"뇌물은 받았지만 허위감정은 없었다"고 다급한대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놓은 검찰은 보나마나 형소심에서 '돈 먹은 김형영씨의 결백'을 주장하겠지만 이제 그것은 하나의 코미디에 불과합니다.

국과수와 결탁한 사설감정인으로 시구속된)의 유리한 증언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국과수에 복기한 경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는 이번에 검찰 소환 직전까지 뇌물수수권에 대해 "터무니없는 모함"이라 주장하며 재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뒤편 뛰다가 나중에야 사인하는 추태를 부렸습니다.

국과수를 먼 전문 문서위조단이 있다는 이명의 부서를 받고 경찰청이 내사에 착수한 것은 작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전의 건원업자 이세용씨가 그 우두머리라는 상당한 실증을 굳히기에 이른 경향이 그러나 3개월만에 내사를 종결해버린 것은 순전히 검찰의 압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세용씨의 하수인을 잡아다 죽인 경찰에 대하여 "검찰 수사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분노하면서 경찰관 5명을 도리어 연행조사까지 했던 검찰의 시비편 서술은 분명 경찰의 내사 과정에서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씨의 결탁 혐의가 드러나자 '유서사건'을 의식한 데서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서사건' 1심 공판 기록에도 김형영씨가 검찰과 담합을 하면서 필적을 감정한 사실은 잘 드러나 있지만, 이 사건에 대한 경찰 내사 과정은 검찰과 국과수의 검은 유착관계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내사 과정에서 김형영씨의 혐의가 드러나 경찰은 1회 중순경 그를 연행

하여 1시간 가량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형영씨는 이 사실을 다루어던 '유서사건' 담당부인 서울지검 형사1부로 연락했으며, 이에 반박한 간부검사가 경찰감부에게 "반야 김씨가 허위감정과 관계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경찰 몇명은 옷 벗을 각오를 하라"고 호통을 쳤다는 것입니다. (<한겨레신문>, 2월 19일자).

국과수 감정비리사건에 처음에는 미지근한 태도를 취했던 검찰은 그것이 건감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갑자기 본격수사로 신뢰하더니 이내 "뇌물을 받은 적은 있었지만 허위감정은 없었다"는 등의 비상식적인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시켰습니다. 이로써 처음 보도된 지 열흘 남짓, 이 엄청난 사건의 보도는 신문지상에서 완전히 그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검찰의 초기 수사종결과 비상식적인 재판은 누가 보아도 '유서재판'에 대비한 허위감정 사실의 은폐기도 임이 분명하며, 조병길씨 구속은 있을 수 있는 또다른 재보를 막아보자는 치졸한 착사임이 분명합니다.

이렇듯 누구의 눈에도 명백히 보이는 사실을 공권력이 덮어버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공권력이 양식과 진실에 입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을 죽이라 우기고 고 김기철 원사의 유서를 강기훈씨가 썼다고 우기는 공권력의 이리바 위신이라는

것은 늘 명바탕을 기고 있을 수밖에 없으며, 땅을 기는 그 위신을 위신으로 지탱해주는 것은 복기법에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리바 복기의 사태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유서사건' 초기, 우리는 국과수 영터리 감정에 대항하는 사설감정인에 의한 감정이라는 의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 마지막에서 재판부가 우리측 증거자료의 국과수 감정을 제외한 때에도(그것은 분명 그 재안을 거부할 때는 유죄선고!! 내리겠다는 공판이었습니다) 과감히 거부했습니다. 복기시대의 현실이 이 낯은 이리바 위신이 용인음유 이바 국과수 사건으로 훌륭히 검증된 것입니다.

이렇듯 복기에 의해 가리워진 국과수 허위감정 비리사건은 바닥까지 파헤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선 "뇌물은 받았지만 허위감정은 없었다"고 다급한 대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놓은 검찰은 보나마나 형소심에서 '돈 먹은 김형영씨의 결백'을 주장하겠지만 이제 그것은 하나의 코미디에 불과합니다. 소위 허위감정을 해줄 뜻이 없으면서도 돈을 벌었다는 파렴치한 사기꾼의 증언을 우리가 왜 믿어주어야 한단 말입니까?

진실은 당당한 행군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파렴치의 여적 속에서도...



[4] 1992년 2월 15일 [요일] - 연 노 보 제11호

달제자와 주  
과 같다.  
합의서 발효  
1 인권(이상)  
▲ 국제인  
대의 질서에  
1 조총련·  
선호사모임)  
기본권(피정  
소소장) ▲  
제일한국인  
에게 활동의  
하· 민족차  
별의 공동

### 연개 취처

지방문한 것  
문 광고, 학  
4부영을 통  
영위한 흉보  
1.  
5는 11일 성  
1 이번 조치  
금지법의 제  
로 확대해석  
원 및 후원의  
1 따른 조합  
게 지원되는  
법의 적용을  
'동료교사를  
가져 원천봉  
산적 탄압을  
1다.

보도에 따르면 국립과학수  
사연구소의 문서분석실이  
사실감정인 및 문서위조단과  
같이 하여 허위감정을 해왔  
고 한다. 이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를 보면서 나는 이  
번 사건의 진상도 흐지부지  
오리무중의 안개속으로 사라  
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이 당연히  
있을 법한 일이며 뒤늦게 발  
견된 범인의 일기이라는 선입  
견을 자유 수 없다.  
이번에 의혹의 핵심으로 띠  
오른 그 문서분석실문가는 지  
난해 세상을 떠돌기까지 한  
이른바 '유서대필사건'에서  
김기철씨의 유서가 강기훈씨  
의 필적과 같다는 '감정의권  
을 제출한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재판에서 한 그의 증언을  
몇 마디 들어보면 이번 허위  
감정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  
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문: 증인은 각 필적감정  
서류 작성할 때까지 검찰측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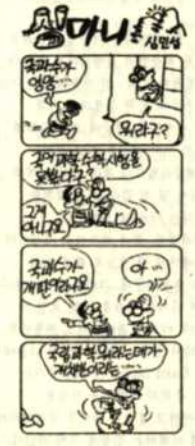


## '허위감정'은 예견된 일

비슷한 누구의 조연이나 설명  
을 들은 바 없이 오직 증인에  
게 제시된 필적자료만에 의하  
여 증인의 경험과 양심에 따  
라 필적감정을 행하였나요."  
"답: 예."  
"문: 그런데 증인이 한 감  
정사찰은... 본래의 감정의뢰  
사람과 다르게 감정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각각 이동여부를 감정하려  
면 복잡하므로 검사에게 전화  
해 '언어야 할 목적물이 무엇  
이나'고 물었더니 '유서를 쓴  
사람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것  
이다'라고 하여... 그렇게 감  
정한 것입니다."  
"문: 증인은 (전민련업무  
일지가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나요?"  
"답: 검사가 얘기하였습니다."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 (떨어져 나간 연수가)  
4이라는 얘기는 누구한테 들  
었나요?"  
"답: 검사로부터 감  
정할 무렵에 들었습니다."  
"문: 검찰에서 의뢰할 때  
추가자료가 책자글씨와 동일  
인이 작성한 것이라는 얘기를  
했나요?"  
"답: 예."  
이렇게 '검찰측을 비롯한  
누구의 조연이나 설명을 들은  
바 없이' 감정한 그는 김기철  
씨의 필적과 강기훈씨의 필적  
이 같다고 판단한 '과학적인'  
근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문: 그런데 증인은 필적  
감정 모두에 있어서 필법상의  
유사비율에 관한 감정기준 근  
거자료를 증인이 감정한 감정  
서에 첨부하는 바도 없고 증  
인이 근무하는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의 문서분석실에도 보  
편하고 있지 아니하지요."  
"답: 예, 그것은 감정기준  
이 '말다'는 것이므로 감정시에  
'내용을 첨부하거나 보편화  
하지 않습니다."  
"문: 그렇다면 이런 필적  
감정을 행함에 있어서 필법상  
의 유사비율문제에 모두 증인  
의 머리속에서 보고 계산하고  
현재 또한 증인의 머리속에 안  
기어되어 있나요?"  
"답: 그 당시 계산하고 분  
석하여 그렇게 판단했고 지금  
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나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  
면 이 정도의 증언만을 듣고  
도 위 사건에서 이루어진 '감  
정'이라는 것의 실체가 무엇  
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확  
신한다. 그런데도 검찰은 그  
런 감정을 하게 하였고 범인  
은 오직 위 감정만이 믿음만  
하다고 하면서 유죄를 선고하  
였다. 그리고 선고하는 동안  
배석판사들은 고개를 푼다  
고 했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





김기훈 특종 필지

“두드릴수록 강해지는 강철처럼……”

영이에게. 내가 보면 新年 Card는 부처의 배설물과 함께 잘 받았는지 궁금하구나. 나이 하나가 늘었으니 몸도 마음도 더욱 성숙해지고, 좋은 일만 계속되는 한 해가 되기를 믿어본다.

회의를 전일로 가설하여 현 유래인 대위를 종신형에 처하게 하고 몇 년후에 한 대령의 손에 의해 전살이 한여름 벗겨지기 시작할 무렵부터 국가권력에 의해 전살을 온데하라는 兇犯들이 하나 둘 늘어났음을 우린 알고 있다. 매우 불행한 일이었고 예전에 내가 말했던 것처럼, 어린 아이였고 허약한 100년전의 오룡가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모두의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현실화되었다. 김철·국과수하다가 1972까지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합세한 양상은 어쩌면 그렇게도 100년전의 프랑스를 닮아가는지.

날씨가 계속 흐리구나. 또, 일까지는 비교적 푸근하고 맑은 날들이었는데 오일은 하늘까지 금방이라도 눈이나 비가 쏟아질 것만 같은 침침하고 비·한 가운데 있구나. 한동안 드롭하더니 얼마전부터 전쪽 무릎과 오른쪽 갈비뼈가 조금씩 무시기 시작한다. 옛날에 조금 심하게 맞은 부위인데, 한 몇 년간 전회 의식을 하고 싶진 못했는데, 이제 와서 재발하였으니 굶은 날마다 케치 못한 기분에 힘겨워 지내게 될 것 같다. 이런 절절한 느낌은 강추위나 폭서보다는 더욱 날 괴롭힌다.

강파와 어떤 의무감에서일까. 칼내 침착하고 자제하려 애를 썼는데도 휘청수위때까지 갈 정도로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고, 고립감과 슬픔때문에, 그리고 한가닥이 아니라 믿고 싶었던 것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20일 오전 약 1시간 가량은 느껴야 했다. 여기에 끌어와서도 한동안은 명한 가운데 넘나들 듯 앉아 있었고, 이런 상태를 남들에게 내보이기 싫어 특유의 Card face가 강하게 보려는 노력도 허사였는가 보다. 주위의 안락하운 시선을 좌우사방에서 받으며 가련하고 불행한 존재로 규정받아야 하는 자의 심안함을 이제 이해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새로운 현실인식을 갖게 되었다. 두드릴수록 강해지는 강철처럼 언어와 고독을 반음수독 내 내부에서 자라고 있는 무지는 이러한 변화하는 인식과 그 때를 같이하고 있다. 권지를 쓰고 있는 이 시간 이거지거시 용리는 몸코름의 분노에 전 합살은 다시 어둠보자는 의지를 불태우게끔 하는 것이다.

신앙에 난 "기차……" 20일이 유행어가 될 것 같다. 화가 날을 때 자주 쓰던 내 특유의 11語인데.

일부씩 규범이던 신산애의 글을 보며 그의 뜨거운 마음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다. 차가운 듯 차가워서도 누구보다도 孝順한 사위만이 그런 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을 위로 받았다.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고, 또 몇 재판과는 달리 일종의 무게를 더해 대처해 나가노라던 만드시 좋은 결과가 오겠지? 그렇게 믿어보자구나. 원래 눈물이 많은(그것보다는 못물이 더 많았군) 내가 20일 밤엔 조금은 특격되었을 것 같아 내 일선의 안위와 함께 자주 눈 앞에 뒹꼈는데, 연습을 많이 했는지 아니면 내 충고가 효력이 있었는지 면회상에선 여전히 명실쌍쌍 밤글밤글이더구나. 장래의 장인 장모님도 충격을 받으셨을 듯하고, 마음 한 귀퉁이에 오랜 시간 남아 있을 상처가 되지 않거만은 바란 뿐이다.

한 해가 이제 10일밖에 남지 않았다. 올해의 후 이상을 담장 안에서 보내고 시시각각 변하는 계절의 모습을 이별 수 없이 관조하게 된 날여행복가 아닌 날여행복가의 인간도 참 서러울 정도로 한심스럽기만 하구나. 지난 몇년전의 20개월(86년은 최후의 땅을 한 번도 밟지 못했다)와 언어가 될 지 모름 앞으로의 무뎠한 개구리 신세로 황금의 20代를 가지면 가까이 양쪽 불기백이 문드러질 정도로 안아서 서러움을 벗어날 할 지 모르겠다. 1실대로라면 94年 6月末, 내가 29, 나는 31세가 되는 해. '살마'하는 막연한 기대감은 어쩌면 악한 세월을 만나 현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안치의 각오는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구나. 거짖은 인제 어느 때라도 기억은자재로 잊다드릴 수 있지만 기대가 무너지는 아픔과 슬픔은

우리 쪽에서 일새없이 내뱉는 스트레이트와 좌우 언타는 모두 빈타로 처리해버리고 헛스윙 한 방을 유일한 유효타로 처리해 판정승을 선언하는 심판관들의 폭 수그린 얼굴을 바라보며 한 개인의 명예를 공익의 이름으로 박살내버린 자의 의외양양함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것은 내 주관적인 관찰은 아닌 것 같구나.

저주스러울 정도로 견디기 힘든 것이 아니라, 무뎠무상의 시간을 약 2주일만 가지면 호드리던 자세도 바로 잡힐 게고, 회망과 기대가 넘치는 세대의 도박과 함께 우리에게도 그만큼의 대가들이 돌아오리라는 믿음은 변할 수 없는 것이다. 담장 언이 버티지는 것은 그래도 위안거리 중의 하나이리라. 무성의 식방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다. 온 없게 이루어져 보면 고통의 6개월의 한 부분은 나기 책임이기도 화기에 더욱 그러했다. 특 언타이 오기론 나중에 내가 명지급 남기시 술 한 잔 사겠다고 그러더라고 진해 주길, 억울하게 지낸 그의 영이생활이 더욱 무지가 넘치는 승전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있다고.

얼마전 오 권투선수가 의무병어전을 저르리 일본에 갔다가 제한 일을 신문에서 보고, 권투경기에서 우세한 경기를 벌이고도 제대한 선수의 마음에 비유한 김현호사님의 말이 생각있게 다가왔다. 정말 그럴 지도 모른다. 자유심중주의를 채택하고, 재판관에게 상당히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시초를 경기장에서 국가권력의 일단을 피한시키지 않으면 무리가 處立되지 않는다는 변덕을 안고 있는 나의 입장. 게다가 이웃한 경찰청사가 말해주듯 유그라운드 의 입장을 최대한 살리고 있는 상대 경시선수들의 목숨을 내건 듯한 악마리전명에는 해하는 게 당연한 지도 모른다. 한 개인의 정의를 권력과 돈으로 뒷받침할 수 없는 존엄한 위치에 서 있고, 그렇게 혼연 받아온 자들과의 고군분투는 이미 1라운드 시합종이 울리기 전부터 정해져 있었을 지도 모르고, 우리 쪽에서 일새없이 내뱉는 스트레이트와 좌우 언타는 모두 빈타로 처리해버리고 헛스윙 한 방을 유일한 유효타로 처리해 판정승을 선언하는 심판관들의 폭 수그린 얼굴을 바라보며 한 개인의 명예를 공익의 이름으로 박살내버린 자의 의외양양함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것은 내 주관적인 관찰은 아닌 것 같구나. 그렇다. 그들은 내심으로는 자신들의 관점이 공평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다. 사실관계에 앞서 그들의 어깨와 머리를 짓누르고 있는 엄청난 하중이

20일의 폭 수그린 자신있는 태도를, 그리고 일터의 관철을 유도한 것이다. 한 인간의 나이팅과 권악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영화와 같은 장면이었다고 할까. 예전에 말했듯이 이런 모든 사실들은 밤에 태어난 내 자녀들에게 어찌구무 없는 표정을 짓게만 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의 한 대목이 될 것이다. (내 딸은 빛을 무덤 아래에 묻는다. "어머는 왜 그해 감옥 안에 있었어요?" 나는 대답한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감옥에 있어선 안된다고 생각했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온데하거 위한 국가권력은 내가 바깥보다는 안에 있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러면 다시 "요즘엔 그런 일은 없지요?" 나는 "그해 아버와 그해 당시의 많은 사람들의 최성과 분투 탓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후엔 없어졌고, 어쩌면 국가권력도 진실을 알고서는 반성을 많이 했거든." 또 허무한 소원을 쓰고 말았구나.

이렇게 잘 알았으면 내가 결혼하자고 조부 때 못이기는 척 따라올 걸 그랬나 보다. 심심함을 참지 못하는 내기 장판의 대화 속에서만 나의 의견을 듣고 돌아서면 정말 온갖 스트래스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기 때문에 필력이나 화력(語力)이 없는 게 안타깝다. 많이 후덜덜 맞인지 조금은 아린 것같은 내 얼굴을 대하며 두터운 신경줄을 생각하며 안심하다가도 적마 표현 못할 어리가지 것들을 어리저리 굴러서 표현해야 하는 처지에 놓임을 조금은 악소리를 내면서라도 털어버리고 받아오는 어침때를 바라보자. 무뎠한 개구리도 유년기 접어진 해를 맞이하기 앞서 그래도 태양은 멀다가 전다는 소박한 진리를 몇 번이고 되뇌이며 우를 밖으로 나갈 날을 묵묵히 기다리겠다.

니를 사랑한다. 1991. 12. 23. 구급 6개월이 되는 날 의왕시 포일동에서 ! 기훈 함



### '유서사건' 강기훈씨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결성에 즈음하여

지난해, 백골단의 최파이프에 의하여 강경대 학생이 타살된 사건을 계기로 공권력의 폭력에 항의하는 국민적 분노의 함성이 무성해 물결쳤다. 그 분노의 물결이 절정에 이른 무렵, 폭력정권에 항의하여 분신한 전민원 사회국 부장 고 김기철씨의 유서가 대립된 것이라는 해괴한 주장이 검찰로부터 언론에 유출되어 우리를 놀라게 했다. 그후 강기훈이라는 젊은이가 언론의 집중포화 속에서 영문도 모른 채 자살발조자가 되어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강기훈씨가 구속에 이르는 과정에서 검찰이 저지른 주변 여러 사람에 대한 인권침해 또한 결코 목과할 수 없는 것이었다.

검찰은 공소장에 유서를 대립한 시기는 물론 장소와 경위를 밝히지도 못한 채 강기훈씨를 구속 기소하였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정치권력이 자신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무고한 개인의 명예와 인권을 제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고 강기훈씨의 결백이 입증되어 그의 인권이 끝내 회복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강기훈씨에 대한 1심 재판의 결과는 강기훈씨에게 징역 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우리의 그러한 기대를 짓밟았다. 재판부는 마땅히 거각하여야 했을 강기훈씨에 대한 검찰의 막연하고도 부실한 기소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또한 과학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비숫해보이는 글씨 몇개만을 골라 확대비교해 놓은 것에 불과한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유죄의 가장 유력한 증거로 채택해버렸다. 반면에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설득력있는 근거를 열거하면서 상세히 제시하고 있는 일본인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극히 사소한 문제를 제기할까 외면했다. 더구나 자유로운 상태에서 임의로 진술한 홍성은씨의 법정증언 대신에 검찰에서의 불법적 강압수사 아래 이루어진 진술을 채택해버림으로써 범인 스스로가 자신의 권위를 핑계치고 권력의 요구에 복종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 판결은 비약과 억측과 강변으로 가득차 있다.

우리는 강기훈씨에 대한 합소심 재판을 앞둔 이 시점에서 무고한 개인의 양심과 결백이 거대한 공권력 앞에 무장히 짓밟히는 비참한 현실을 보고 안이만 있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실정으로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강기훈 공동위」는 강기훈씨의 무죄석방을 목표로 합소심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운동, 유서사건의 진상과 강기훈의 결백을 알리는 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최근 국과수의 허위감정비리가 드러나 온 국민을 경악시킨 바 있다. 허위감정비리의 주범인 김영영(국과수 肅문서분석실장)이 강기훈씨가 유서를 대립했다고 감정한 바로 그 장본인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이제 강기훈씨의 결백은 더욱 분명해졌다. 강기훈씨는 극각 석방되어야 하며, 그동안 흰 것을 검은 것이라 무거운 채택들은 심판받아야 한다.

우리는 이 알감과 비양심, 진실과 거짓의 싸움에서 결국 양심과 진심이 승리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싸움에서의 승리는 강기훈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양심과 진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승리로 기록될 것이다.

1992. 2. 27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신부 함 새 응

고난받고 있는 강기훈씨를 도움시다

## 정의와 진실의 대장정 여러분과 함께 걸고자 합니다



강기훈씨는 지난해 5월 검찰이 만들어낸 소위 「유서대립사건」의 희생양이 되어 1심 재판에서 3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복역중입니다.

강기훈씨의 합소심을 앞두고 그의 양심과 결백을 믿고 있는 우리는 무죄석방을 위해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심과 진실의 승리를 믿는 보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위해 「강기훈후원회」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강기훈후원회」는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거대한 공권력에 맞서 외롭고 힘들게 싸우고 있는 강기훈씨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무죄석방을 위한 활동에도 힘이 될 것입니다.

최근 강기훈씨가 유서를 대립했다고 감정한 국과수의 허위감정비리가 드러남에 따라 강기훈씨의 결백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처럼 유죄판결을 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인간에 대한 어떠한 신뢰와 희망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강기훈의 결백이 밝혀짐으로써 우리 모두가 양심과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건전한 상식을 믿을 수 있도록 부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신부 함 새 응

후원금 : 1만원 이상(후원회원에게는 대책위에서 제공되는 소책자, 공판소식 등 자료를 즉시 보내드립니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 003-01-0570-152, 상업은행 : 119-05-119332, 농협 : 084-01-132153 강기훈  
 연락 및 문의처 : 전화 : 745-9564, 743-9127-8, FAX : 742-8289

위원장 : 함 새 응 고문 : 채문재, 박영준, 김승훈, 박용집, 박종기, 박형규, 박기현, 송필주, 신정근, 이준영, 조희순, 한순환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2. 9. 1. 5. 9.

# 全民聯간부 焚身자살

## 서강대 본관서 신나끼였고 특신

8월 25일 오전 8시 5분경 서강대 본관서 5층 옥상에서 서진연(全民聯) 간부 김진연(金鎭演) 씨(26·경기도 안양시 호계동)가 불에 신나를 끼얹어 불을 붙이고 뛰어내려 자살했다. 순사가 부실히 피를 흘리며 생환한 뒤 의사가 이틀 동안 치료했으나 고혈압으로 사망했다.



자살한 김진연씨

김씨는 옥상에 발친 후 서에서 아래 계층까지 뛰어내려 불에 타 죽었다. 서강대 본관서 5층 옥상에서 자살한 김진연(金鎭演) 씨(26·경기도 안양시 호계동)가 불에 신나를 끼얹어 불을 붙이고 뛰어내려 자살했다. 순사가 부실히 피를 흘리며 생환한 뒤 의사가 이틀 동안 치료했으나 고혈압으로 사망했다.

부머 경기도 성남 민청련에서 활동했고 90년 11월부 터는 전민련사무원장을 맡아왔다. <대필기사22번>

202. 9. 1. 5. 9. 第21626号

(第31番部) 史物(7) 日誌(2) 認可

조

# 2~3일간격 연쇄발생 「계획」 의혹

## 檢察「焚身배후」수사 착수 배경



이전 노태우 정권 때도 하치... (Caption text describing the photo)

가장 최근의 연쇄발생인 8월 25일 오전 8시 5분경 서강대 본관서 5층 옥상에서 김진연(金鎭演) 씨(26·경기도 안양시 호계동)가 불에 신나를 끼얹어 불을 붙이고 뛰어내려 자살했다. 순사가 부실히 피를 흘리며 생환한 뒤 의사가 이틀 동안 치료했으나 고혈압으로 사망했다.

## 「지역안배... 한적한곳 投身도 유사」 증거는 아직 없다... 「운동권고립」 비판도

전민련(全民主義連)의 연쇄자살(自殺) 현상은 8월 25일 오전 8시 5분경 서강대 본관서 5층 옥상에서 김진연(金鎭演) 씨(26·경기도 안양시 호계동)가 불에 신나를 끼얹어 불을 붙이고 뛰어내려 자살했다. 순사가 부실히 피를 흘리며 생환한 뒤 의사가 이틀 동안 치료했으나 고혈압으로 사망했다.

연쇄자살(自殺) 현상은 8월 25일 오전 8시 5분경 서강대 본관서 5층 옥상에서 김진연(金鎭演) 씨(26·경기도 안양시 호계동)가 불에 신나를 끼얹어 불을 붙이고 뛰어내려 자살했다. 순사가 부실히 피를 흘리며 생환한 뒤 의사가 이틀 동안 치료했으나 고혈압으로 사망했다.







제7957호

(제13권 제957호(1954년))

中 央 日

# 焚身에 「협력자」 있었을까...



고교의 불구-부친(인간)은...  
 불구-부친(인간)은...  
 불구-부친(인간)은...

고교 중퇴학력 88년 民靑聯 가입  
 城南九里공장서 출판 노동운동  
 ...

**검찰 수사와 在野인정**  
 ...

**유서 즉각公開등 석연치않아 검찰**  
 23일간격으로 全國서 계속 발생  
 民主열기 냉각시키려는 음모 在野

...  
 ...

(23) 제7957호

(제13권 제957호(1954년))

中

월순아간네 (5036) 새한겨레



산뜻한 잔병세  
**암씨롱**  
 100% 천연계약

...  
 ...

**「金씨焚身」 방조여부 수사**  
 검찰 유서 自筆 확인위해 필적조사  
 ...

**죽음을 선택하는 어둠의 세력있다**  
 차림서갈대총장...  
 ...



**金씨 焚身 목적자 4명 조사**  
 91.5.10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재판장 김성환)은 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방법원 형사부(재판장 김성환)에 이 사건을 송부하여 4명 피의자를 기소했다. 피의자는 김성환(40)씨, 김성환(40)씨, 김성환(40)씨, 김성환(40)씨 등이다.

**김철 焚身경위 수사 혼선**  
 西江大교수 "사건후 옥상서 한명 봤을뿐"

김철(40) 교수의 자살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부(재판장 김성환)는 9일 오전 10시 30분 김철(40) 교수의 자살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부(재판장 김성환)는 9일 오전 10시 30분 김철(40) 교수의 자살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김철(40) 교수의 자살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부(재판장 김성환)는 9일 오전 10시 30분 김철(40) 교수의 자살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부(재판장 김성환)는 9일 오전 10시 30분 김철(40) 교수의 자살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김철(40) 교수의 자살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부(재판장 김성환)는 9일 오전 10시 30분 김철(40) 교수의 자살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부(재판장 김성환)는 9일 오전 10시 30분 김철(40) 교수의 자살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91.5.10

**'분신' 배후수사 진전없어**  
 "현장 다른사람 본적없다" 목격자 진술

전국민중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철씨 분신자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법 형사부(김진욱 부장검사)는 9일 분신동기와 경위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나 분신현장에 김씨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없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잇따르고 있어 배후 여부 등에 대한 조사는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김철은 분신현장에서 발견된 김씨의 옷은 안경, 카세트, 시계 등 유류품을 유출물로부터 남겨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지문 채취를 의뢰하기도 했다. 김철은 김씨 김씨에 대해 김씨의 손에 35도 화상이 있고 앞머리가 함몰돼 있고 사인은 부신 때 생긴 머리화상인 내출혈 때문으로 보거나 화상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부신 여부는 추후 결정기로 했다.

하버, 5.10(4면)      용역 심어년 3월 26일(경전) [13]

**침묵거리시위 충북대 안상현 교수**

**인리특**

“정치대생 강경대태 타살사건에 대해 각계의 성명과 논쟁이 뒤따라도 한 정권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본질을 알기 위해 거리를 나서셨습니까?”

안상현(40) 교수는 “학생들의 죽음에 대해 정부와 사회가 책임을 지고 사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 사건은 대학살이므로 사회적 책임을 지고 사과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신배후 수사 협조하라" 경찰관, 교회서 행패**

9일 오후 2시45분경 경기도 성남시 대평4동 주민교회(담임 이태하 목사)에 서울지법 대공과 소속 정병관(39) 경사가 8일 서강대에서 분신 사건의 김기철씨에 대한 배후수사를 위해 들어왔다. 신도 학생들에게 불합리한 자술서를 쓰고 5시간 만에 물러났다.

**'죽음 선행' 운운 변혁의지 모독**

잇단 분신 독재정권에 의한 엄연한 '타살' 현시국 본질은 '정권위기'... 양비론 안될말

목시위에 참여교수 22명과 함께 앞장섰던 충북대 안상현(40·친위) 교수는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현재나 정권과 소극적이라는 대학살생들이 합법적 시위를 이끌어냄으로써 시위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시위에 대한 시각 조정을 시킬 의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경사는 이날 동료 이상진(47) 경사와 함께 교회에 들어와 사무실에 있던 정병관(29)에게 "성남민주청년연합 사무실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으나 정씨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욕설을 하고 따귀를 때리려는 등 행패까지 부렸다. 이 정경사는 다른 신도와 학생 10여명에게 정경사는 불합하고 이 정경사는 달아났다.

91.5.10



5.10 한겨레

# “분신 배후세력” 발언 책임져야 증거없는 의심보다 사태 해결 힘쓰길

사랑하는 아내와 딸 하나를 돌  
필만한 적장인이다.  
건로 찬성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해하지 않을 수도 없는 최근의  
잇따른 젊은 죽음들에 대해 공안  
정권은 마침내 '배후조종세력'을  
거론하고 나섰다.

민일 검찰총장이 밝힌 대로 잇  
따른 분신과 무신의 배후에 자살  
을 부추기는 조직적인 세력이 있  
다면, 하늘과 같은 한 개인의 목  
숨에 순변을 매가면서 '죽음'을  
명하는 세력이 있다면 나는 아내  
와 딸이 굶는 한이 있더라도 적  
장을 땀겨치고 그들을 찾는 데  
힘을 보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죽음의 순수성을  
의심하기에 앞서 '죽음의 배후조  
종'을 선설의 반설하는 공안정권  
의 순수성을 먼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80년 신군부세력의 의도적인  
부러뜨림으로 촉발된 광주민중항쟁  
에 대해 정권이 즉각적으로 '적  
색분자의 배후조종'을 들먹였던  
기억이 그리 먼지 않다.

순직한 보수언론단체 외에 대  
대적으로 보도된 이 '적색선동설'  
로 총알 앞의 광주시민은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유리되었고, 수백  
수천의 시민들은 무관심 속에서  
죽고 다쳐 다시는 남들과 같이  
찬란한 5월 햇살을 즐길 수 없게  
되었다.

그 뒤 10년이 더 지난 지금 누가  
광주항쟁을 선동한 '적색분자'  
로 밝혀졌는가? 정권은 오히려  
'광주폭동'이라던 예초의 입장을  
스스로 '광주민중화운동'으로 정  
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했으며 회  
생자·부상자에 대해 수천만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을 '금전보상'을  
하겠다고 받지 않겠다는 그들에  
게 애걸하고 있다.

증거없이 혐의를 씌우는 것을  
'무고'라고 한다.

검찰은 뒷발침할 아무 증거없  
이, 그야말로 느닷없이, 죽어간  
젊은이와 쓰러진 가슴을 부여안  
고 있는 그들의 유가족 그리고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조직세력  
의 꼭두각시로, 그들에게 속고  
있는 '명칭'으로 '무고'를 하고 나

신 셈이다. 가장 의심은 했으니,  
김정은 이제 그런 의심은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해백  
한 증거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

반약 이제까지 술한 역사적 사  
신들을 통해 그들이 써먹어온 '어  
른조작용' '음해용' 카드 중의 하  
나였다는 것이 이번에도 드러난  
다면, '조사해보니 아무 것도 없  
더라' 하는 식으로 넘어간다면,  
무덤의 내 젊은이와 함께 내가  
들어갈 것이다.

송 호 립 <서울 서대문구 참전동  
383>

## 계속되는 희생 공안 통치 산물

공안집권에 묻는다.  
당신들의 배후조종세력은 누구  
이며 무엇인가? 정의인가? 법

## “젊은이 죽음 뒤에서 조종” 정부 주장은 억지에 불과

강경대씨가 정권의 최파이프에  
맞아 죽은 뒤 10여일 동안에 4명  
의 젊은이가 줄지어 분신, 무신  
했다. 이들의 한결같은 의침은 '노  
대우 정권 퇴진하라'는 것이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이미 4명의  
젊은이를 죽음에 몰아넣고 한 여  
대생을 사경에 떨어뜨린 정권은  
그 사실만으로도 퇴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더 큰 희생과 사  
고를 막는 길일 것이다.

그런데도 이 '타살정권'은 퇴진  
은커녕, "잊달은 분신을 선동하  
는 '배후세력'이 있을 것"이라며  
소매를 걸어붙이고 있다. 기가  
막힐 일이다.  
세상의 어느 누가 '선동'에 따  
라 하나뿐인 목숨을 내던지겠는  
가.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미 지  
각능력이 버섯한, 평연한 성인인  
디군다나.

굳이 배후조종이나 '방조자'  
있었다면 그건 다음아닌 바로 이  
정권이다. 6.29는 '속이구'였고, 3.  
달야합, 보안사, 안기부의 민간인

인가? 아니면 양심, 국민, 민주,  
통일인가?

그보다는 부와 권세, 명예, 일  
신의 행복, 자신의 기득권을 위  
협하는 모든 것에 대한 무분별한  
적개심인가?

후자쪽이라고는 정말 믿고 싶지  
않지만, 아 당신들의 입에서 거  
침없이 내뿜어지는 '배후조종' 그  
말에 대해서만은 정말 귀를 막고  
싶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도 물어보지  
않고 누구의 배후조종도 받지 않  
고 나는 내 가슴과 내 머리로 판  
단한다. 정답은 뒤쪽이라고.

죽은 자들에게 입이 있다면 그  
들은 말할 것이다. 내 죽음을 배  
후조종한 것은 바로 이 시대, '공  
안'의 이름 아래 눈이 시게 설치  
며 사는 '당신들의 시대'라고.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서강대의  
한 교직원

사할·의원비용 외유·수서비리·패  
놀사태·원전사태, 거기에 더해  
대학생 최파이프 살인까지.

계정신 박한 사람이면 누구나  
좌절하고 실의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죽고 싶은 충동은  
언제나 꿈틀거리고 있다. 누가  
죽음을 '선동'하고 '배후조종'했다  
는건가.

이미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못말았다면 '중간평가'라도 받아  
보는게 어떨까 싶다. 자신 없다면  
즉시 물러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  
동안 내세웠던 '구국의 결단'에  
따라 하루라도 빨리.

김 재 호 <서울 강동구 천호동 3  
22-16>

## 사설

5.10 한겨레

##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말라

마침내 정부 여당은, 힘의 논리에 바탕한 공  
안통치의 종식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항의를 바  
로 그 '힘'과 '공안'을 앞세워 정면 돌파하는 쪽  
으로 방침을 굳혀가는 것 같다. 참으로 우려할  
만한 사태를 손짓하는 듯한 권력집단의 이런 강  
경방침은 최근 일련의 정부조직에서 분명한 모  
습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예초에 강경대씨 죽음을 애도하는 시위행렬에  
대해 그 죽음을 부른 공권력의 폭력을 삼가지  
않은 데서 이미 그러한 조짐은 분명해 보였다.  
그것은 죽은 자에 대한 추모마저 진압의 대상으  
로 보는, 국민을 우습게 아는 위압적 자세에 다  
름 아니었다. 주요도시 곳곳에 느닷없이 내걸린,  
시위 자제를 호소하는 문명의 플래카드 또한 비  
수한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이  
름을 훔쳐 국민을 속이려드는, 그 따위 저급한  
장단에 속기해할 국민쯤으로, 권력의 눈에는 우  
리 국민이 우습게 비치는 것일까. 한전중공업  
노조위원장의 시신 탈취와 강제 부검 또한 망자  
에 대한 산자의 최소한의 예의마저 내뱉개친,  
그야말로 상상을 절한 공권력의 난동이라고밖에  
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반민주 악법 개정을 둘러싼 협상과정 또한 국  
민을 우롱하기는 마찬가지였다. 3년여의 긴 논  
란 끝에, 바로 그 악법 개정을 위해 열린 임시  
국의 회의를 이를 앞두고 밤샘대회라도 벌일듯  
부산을 열더니, 무슨 돌발 사태라도 난 것처럼 '심  
야당정회'라는 긴박한 자리를 만들고, 공안집

권이라는 서슬푸른 공적자들이 정부가 마련한  
법안을 공공연히 반박하러 뛰어다니는 모습들이  
도무지 국민의 상식에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새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내부논의를 거쳤을 터  
인데도 고위 공직자들이 때맞춰 그런 소란을 피  
우는 모습을 국민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은 국가  
권력의 온당하고 위엄있는 행사와는 너무나 거  
리가 먼 작태가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의 모멸감을 불러 일으키는 이런 태도  
는 분신자살의 배후 수사를 전권 검찰에 지시한  
검찰총장의 말 속에 더 잘 드러나 있다. 분신사  
건의 배후를 알아보는 일이야 검찰의 당연한 임  
무일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증거를 확보했거나  
누구를 입건하지도 않은 내사 착수 단계에서 마  
치 거대한 음모라도 포착한듯 언론에다 대고 배  
후수사를 떠벌리는 검찰의 자세는 그 정치적 저  
의를 의심받기에 충분한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얼마전 수사사건을 놓고 '의심은 가지만 증거가  
없어 수사에 나설 수 없다'던 그 강변은 그새  
어디로 가버렸는지, 참으로 낮 뜨거운 반문을  
검찰총장에게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민주화를 위한 인식의 전환과 가시적인 과감  
한 개혁조치를 역설해 온 우리는, 정부 여당이  
이같은 공안적 자세를 바꾸지 않는 한 정권 퇴  
진을 요구하는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닥치게  
되리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리게 된다. 국민의  
뜻이 뒷받침되지 않는 힘의 행사가 어떤 결과를  
맺는지는 권력집단이 더 잘 알 것이 아닌가.

## 불사를 수 없는 젊음이다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젊은이들의 분신을 지  
켜보는 우리의 마음은 무겁기 그지 없다. 몸을  
불사르는 그 행위에 이르기까지의 결단의 크기  
를, 젊음의 열정 하나만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다는 중압감과, 다시 무서운 고통 속에서  
끝내 맞고마는 죽음의 무게를 짐처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더욱 무  
겁게 하는 것은 '국민적 의혹'을 앞세워 그 엄창  
난 분신과 죽음의 '배후'를 캐냈다고 나서는 '공  
안담당세력'이 바로 불덩이가 된 젊음들이 외친  
부정의 대상들과 다르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더욱이 강경대씨가 공권력에 희생된 지 보름  
이 지나도록, 또 그 이후 4차례의 분신과 3차례  
의 죽음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백골단과 전경은  
여전히 방패와 진압봉을 휘두르며 어지럽게 뛰  
고 이들을 앞세운 정부는 공안통치 종식과 근본  
적인 민주개혁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는커녕  
오히려 정면대결을 선택하고 있다. 그들을 끝내  
죽음을 이르도록 거든 우리 사회의 폭력불감증  
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고 한쪽에선 정치의  
실용을 따하는 소리만 높은 가운데 많은 국민들  
은 무력감에서 헤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의 현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자신을 불태우는 청년·학생  
들의 그 처절한 희생적 항의방식이 강경대씨 타  
살이란 '필연적 결과'를 끌고 온, 공안통치의 심  
각성을 일깨우는 유일한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돌아켜야 한다. "손 잡고 함께 하는  
싸움"이어야 한다는 분신 젊은이의 뜻과, 또 천  
세용세의 분신·무신 순간을 목격한 수백명의 동  
료학생들이 일제히 터뜨린 "안돼!"라는 그 외침  
은 더 이상의 분신을 막아야 한다는 우리 모두  
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크고 작은 목소리  
로 민주와 정의를 외치고 또 몸으로 부딪친 모  
든 이들이 한 목소리로 전하는 그 안타까운 당  
부와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해서도 안된다. 또 종  
교적 또는 이념적 '순교성'의 본래적 '반까지  
들먹이면서 젊음의 '비이성적 충동'과 '반생명의  
극치'로 분신을 폄하해서 서슴 없이 애도하는  
한쪽의 분위기가 청년·학생의 순수성과 방관하  
지 않는 시민들의 참여를 훼손하지 않도록 경계  
해야 할 일이다. 거듭 간절하게 촉구한다. 불사  
를 수 없는 젊음이다.



# 정국반전 노린 '조작극' 짚어

5/10 3면기

## '분신배후' 검찰 주장의 허구성

헌인연 사회부장 김기철(26)씨의 분신사건과 관련, 서강대 박용홍 교수는 김씨의 분신 직후인 지난 8일 12시30분경 기자회견을 차려 "지난 우리사회에는 죽음을 선택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국정세력이 김씨의 분신을 선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러한 주장에 김씨의 분신 직전 인터뷰에 대한 사실이 담겨 있는 것을 본 박용홍 교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사살을 도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밝혀 비추 자살을 방조하거나 선동하는 특정세력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고 있다."

박용홍 교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사살을 도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밝혀 비추 자살을 방조하거나 선동하는 특정세력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고 있다."

박용홍 교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사살을 도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밝혀 비추 자살을 방조하거나 선동하는 특정세력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고 있다."

박용홍 교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사살을 도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밝혀 비추 자살을 방조하거나 선동하는 특정세력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고 있다."

## 자살 방조세력 있는 듯 착각 유도

### '현장에 다른 사람' 근거없는 가정 뻥튀기

박용홍 교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사살을 도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밝혀 비추 자살을 방조하거나 선동하는 특정세력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고 있다."

## 검찰조사 반발...재야 입장

박용홍 교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사살을 도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밝혀 비추 자살을 방조하거나 선동하는 특정세력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고 있다."

## "상식이하의 반인륜적 시각"

### 개인적 결단...전술로 거론조차 할수없어

박용홍 교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사살을 도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밝혀 비추 자살을 방조하거나 선동하는 특정세력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고 있다."

박용홍 교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사살을 도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밝혀 비추 자살을 방조하거나 선동하는 특정세력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고 있다."

## 社說

## 焚身自殺組 사실일까

헌인연 사회부장 김기철(26)씨의 분신사건과 관련, 서강대 박용홍 교수는 김씨의 분신 직후인 지난 8일 12시30분경 기자회견을 차려 "지난 우리사회에는 죽음을 선택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국정세력이 김씨의 분신을 선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러한 주장에 김씨의 분신 직전 인터뷰에 대한 사실이 담겨 있는 것을 본 박용홍 교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사살을 도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밝혀 비추 자살을 방조하거나 선동하는 특정세력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고 있다."

박용홍 교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사살을 도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밝혀 비추 자살을 방조하거나 선동하는 특정세력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고 있다."

## 서강대 全民聯간부 焚身

### 목격자 4명 조사

헌인연 사회부장 김기철(26)씨의 분신사건과 관련, 서강대 박용홍 교수는 김씨의 분신 직후인 지난 8일 12시30분경 기자회견을 차려 "지난 우리사회에는 죽음을 선택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국정세력이 김씨의 분신을 선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러한 주장에 김씨의 분신 직전 인터뷰에 대한 사실이 담겨 있는 것을 본 박용홍 교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사살을 도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밝혀 비추 자살을 방조하거나 선동하는 특정세력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고 있다."

박용홍 교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사살을 도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밝혀 비추 자살을 방조하거나 선동하는 특정세력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고 있다."



# 강경대씨 14일 장례식

## 김기설씨도 같은날...시청앞 합동 노제

강경대 일사 복벽살인 규탄 및 공안봉쇄 종식을 위한 범국민대회회의는 오는 14일 강경대씨와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장례를 각각 민주국민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대회회의는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4일을 강경대씨와 김기설씨를 비롯 안동대생 김영관·김원대생 천세용씨 등의 뜻도 함께 기리는 '국민 추모의 날'로 정했다"고 밝혔다.

대회회의는 이에 따라 14일 오전 9시 병지대에서 강경대씨의 영결식을, 오전 11시에는 연세대에서 김기설씨의 영결식을 각각 치른 뒤 낮 12시 연세대에서 강씨와 김씨의 영구가 도착한 가운데 이번 사태에서 숨진 다섯 사

람에 대한 합동 '국민추모회'를 갖기로 했다.

대회회의는 이어 같은날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시청을 향해 평화행진을 벌여 오후 3시30분부터 시청 앞 광장에서 노제를 치르기로 했다. 김기설씨의 장지는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 묘지로 정했으며 강경대씨의 장지는 유족과의 합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대회회의는 또 이에 앞서 12·13일을 국민에도기간으로 정하고 병지대와 연세대에 숨진 다섯 사람에 대한 분향소를 설치하는 등 추모행사를 펴기로 했다.

한편 김기설씨 아버지 김정렬(56)씨는 이날 이와 관련 "아들이 온 국민을 위해 죽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회회의의

에 장례일정을 주관해 달라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 김씨 자취방 압수수색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 분신사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강신욱 부장검사)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2동 74-2 김씨의 자취방을 수색하고 김씨의 유서에 대한 필적조사를 위해 김씨의 책자나 노트 등을 찾았으나 김씨의 글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분신하기 전후의 상황을 좀더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본 서강대 학생들이 조사에 응해줄 것을 서강대측에 요청했으나 학생들에 대해 11일중 정식으로 소환장을 보내기로 했다.

대형... 자·제... 유·제... 비... [기사 일부 생략]



## 「焚身배후 수사」 미묘한 波長

金石基 <사회기자> 중앙 9.5.10

배후 수사를 하는 것은... [기사 일부 생략]

배후 수사를 하는 것은... [기사 일부 생략]

## 사조방사자복목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26)씨가 서강대에서 분신한 직후인 8일 낮 12시30분께 이 대학 박 총장은 급히 기자회견을 자청,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분신의 배후에는 죽음을 선동하는 세력이 있다"며 "이 죽음의 세력을 폭로하는 데 단호히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 총장의 이런 발언은 검찰이 최근 잇따른 분신의 배후 방조자가 있는지 여부를 수사하겠다고 나선 시기와도 일치해

국민에게 마치 운동권이 동료의 죽음을 제물로 삼아 '혁명'을 완수하려는 '광신적 밀교집단'처럼 비치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박 총장이 이처럼 '배후' '복로' 등의 단어까지 써가며 확신에 찬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은 부인하고 있지만 "분

신 현장에서 흰 점퍼차림의 또 한사람을 보았다"는 이 학교 총무처장 윤여담 교수의 목격담이 큰 작용을 했으리라 보여진다. 박 총장은 지난 9일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는 일제의 가미가제같은 조직된 자살폭공대는

정치권력도 저항세력도 모두 죽음의 세력이라든 대안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박 총장은 "원정치세력에 비폭력의 방법으로

할임없이 도전하여 그들이 생명을 존중하는 정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폭력 투쟁도 끈기와 근면함이 갖춰져 죽을 때까지 각오해야 하는 결연한 의지와 희생이 요구되는 싸움인데, 이런 논리도 죽음을 선동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끝내 분명한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이성수 기자>

### 동네방네

#### '죽음 선동세력'의 발원

아직 없어도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심취한 학생들 속에서 그런 '조금'이 보인다"며 "죽음선동세력이 운동권의 일부를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윤 교수가 목격한 '흰 점퍼차림의 남자'가 "죽음을 선동한 배후세력"이 아니라 분신 직후 뛰어올라간 이 학교 학생



# '분신 배후조종' 비난 유서

## 5.11 3남거기 5번째 희생 윤용하씨 화장실서 시너 끼었고 구호 은품 2~3도 화상...학생들 외부인 차단

[광주=박화강 기자] 10일 오후 6시30분에 광주시 북구 동봉동 전남대 대강당 1층 화장실에서 윤용하(22·부지·대전시 동구 용전동 194-2·사건)씨가 온몸에 시너를 끼었고 분신. 전신 2~3도의 화상을 입고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다.



이렇다는 것이다. 학생들과 대강당 경비원들은

소화기의 온열 못에 붙은 붙은 끈 뒤 끈을 지나서 4월 24일 74 개인승인내시에 대해 6시50분에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병원측은 "유씨가 전신에 2~3도의 화상을 입었으며 기도 부상을 위해 오후 8시에 기관지 절개 수술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대 총학생회는 "분신 현장에서 용수침에 끼워진 16원짜리 크기의 만화지 하나만 흔적이므로 보이는 노드와 손수건, 흰색운동화 1켤레 발견했다"며 "노드는 '누가 분신을 배후조

조종한 것인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그 누가 버려라'고 한탄 발언' '노드주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되건다' '조국유 위해 버립니다' 등의 글씨가 쓰여 있었다"고 밝혔다. 유씨가 전남대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병원 앞 4차선도로에서는 시너 2원짜리 2원짜리 '이집나' 연사 판매장인 계승 및 노드주 정권 퇴진을 위한 시위집회대피소로 있었으며, 분신소식이 알려지자 학생 2여명이 흉갑을 두 번을 에워싸고 외부인의 접근을 막고 있다.

감작스런 너의 죽음에 이것이 도대체 공인지 생인지지 분간 못할 슬픔이 밀려온다. 어찌 저네 길러온 너의 마지막 전파의 의미라도 알았으면 이렇게 비통하거는 없었단 말. 오랜만에 안부를 전하는 목소리에서 끝나왔던 침울함이 생사를 넘나드는 처절한 고뇌였을 줄이야 죽음을 결심하고 유언장이라도 썼을지 한 그 시간에 난 내게 허망한 웃음과 약속밖에 주지 못했다. 니. 아이! 참을 수 없는 자책

피로위하고 운동의 침체와 허박한 현실을 가슴아파했던 너. 왜 몰랐을까. 이 저주받은 땅에서 열사가 아니라 전사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너의 어린 심장은 끝내 이 어두운 죽음의 시대에 한 줄기 빛으로 스며져갔구나! 아니, 시커먼 슬픔이 되 어 몸으로도 말하였구나! 허리 잘린 민족분단의 아픔을, 착취와 독재에 신음하는 민중의 고통을. 그리운 널, 김기철 동지!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시너가 전국으로 확산 격화되고 있다. 나쁜놈들! '국민의 힘을 이겨내'는 '국민의 의도된 분신'에 따라 국민들의 의도된 분신'을 9시와 10시 같은 한기적 망상이 속속 일어나고 있다. 분신사건에 대한 시선전환을 위한 전향적 인 노의 대신 '국민의 분신사건'에 대한 시선전환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분신사건에 대한 시선전환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분신사건에 대한 시선전환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 해방의 함성으로 부활하라

김기철씨 죽음에 부처  
과 통탄스러움이 가슴을 친다. 이제 그 뒤없는 미소, 때때로는 웃음 따서는 보지 못하리. 지난해말 막내로 들이와 하루 24시간도 모자랄 만큼 힘든 일이 계속되었는데도 누구 구 못지 않게 성실하고 솔선수범했던 우리의 동지, 때때로 한 성격에 말보다 실천이 앞섰으며, 학원에서 공장으로 거리로 끊임없이 분출하는 민중투쟁의 현장에는 항상 가장 먼저 달려갔던 전민연의 일군. 밤이면 행한 눈을 반짝이며 신념들의 무력과 타성을 절취하고, 정서관과 투쟁방향을 도면하며 슬하계 지내왔던 나날들. 항상 노동자의 권익에서서 원칙과 현실의 모순에

과 통탄스러움이 가슴을 친다. 이제 그 뒤없는 미소, 때때로는 웃음 따서는 보지 못하리. 지난해말 막내로 들이와 하루 24시간도 모자랄 만큼 힘든 일이 계속되었는데도 누구 구 못지 않게 성실하고 솔선수범했던 우리의 동지, 때때로 한 성격에 말보다 실천이 앞섰으며, 학원에서 공장으로 거리로 끊임없이 분출하는 민중투쟁의 현장에는 항상 가장 먼저 달려갔던 전민연의 일군. 밤이면 행한 눈을 반짝이며 신념들의 무력과 타성을 절취하고, 정서관과 투쟁방향을 도면하며 슬하계 지내왔던 나날들. 항상 노동자의 권익에서서 원칙과 현실의 모순에

### 정근보 경제 부채질하는 정부 배후조종 의혹 제기

정근보 기자

정근보 기자는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열린 '정근보의 경제부채질'이라는 제목의 세미나에서 정근보의 경제부채질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근보의 경제부채질에 대해 정근보는 "정근보의 경제부채질은 국민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근보는 "정근보의 경제부채질은 국민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근보는 "정근보의 경제부채질은 국민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 국민경제 위기에 '후배' 등 '민중'의 힘에 의거

정근보 기자

정근보 기자는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열린 '정근보의 경제부채질'이라는 제목의 세미나에서 정근보의 경제부채질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근보의 경제부채질에 대해 정근보는 "정근보의 경제부채질은 국민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근보는 "정근보의 경제부채질은 국민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근보는 "정근보의 경제부채질은 국민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金基高씨 분신사건**  
 檢察수사 진전없어  
 金氏가 분신사건에 대한 진술의  
 수사가 11일 현재 나흘째  
 제자인정판단 하고 있다.  
 金氏가 11일 현재 나흘째  
 제자인정판단 하고 있다.  
 金氏가 11일 현재 나흘째  
 제자인정판단 하고 있다.

## 오늘 김기설씨 장례식 강경대씨 장지 망월동 확정

고 강경대 일사 폭력살인 규탄 및 공안봉치 종식을 위한 범국민 대책회의는 진민련 사회부장 고 김기설씨의 장례를 12일 민주국민장으로 치르고, 14일 장례식을 갖기로 한 강경대씨의 장지를 광주 망월동 묘역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13면>

김기설씨의 장례는 예초 오는 14일 방지대생 강경대씨와 같은 날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양쪽 유족들과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이렇게 바뀌었다.

대책회의는 김씨의 장례절차와 관련, 12일 오전 11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영안실에서 발인해 김씨가 분신한 시장대에서 영결식을 갖고 오후 1시30분에 신촌로터리에 노제를 치른 뒤 장지인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으로 향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씨의 장례위원장은 분의환

목사가 맡기로 했다. 대책회의는 또 14일 오전 9시 방지대에서 강씨의 영결식을 치른 뒤 낮 12시 연세대에서 강씨 등 이번 사태로 숨진 다섯 사람에 대한 '국민추모회'를 갖기로 했다.

대책회의는 이어 오후 3시 시청 앞 광장에서 강씨의 노제를 치내고 장지인 광주 망월동 묘역으로 향할 예정이다.

강씨의 주검은 13일 오후 2시 모교인 방지대로 옮겨진다.

대책회의는 이에 앞서 12~14일을 국민예도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의 대학과 사회단체 사무실에 산향소문 마련하기로 했다.

대책회의는 또 이 기간에 연세대와 방지대에서 민요연구회 등 문화운동단체 주관으로 매일 오후 3시에 추모문화공연을 열기로 했다. **한겨레 91.5.12.**

91.5.13

## 김기설씨 모란공원에 묻힐



오전 11시 모란공원에 김기설씨 장례식이 치러지는 모습이다. (한겨레 91.5.12)

**김기설씨 장례식**  
 김기설(55)씨의 장례식이 12일 오후 1시30분 서울 마포구 신촌로터리에서 치러졌다. 장례식은 김기설(55)씨의 장례위원장이었던 김기설(55)씨가 주관했다. 김기설(55)씨는 이날 오후 11시30분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발인을 가진 김기설(55)씨가 주관했다. 김기설(55)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에 서울 마포구 신촌로터리에서 장례식을 치렀다. 김기설(55)씨는 이날 오후 11시30분에 연세대 세브란스

**분신사건 金基高씨 어제 장례식**  
 김기설(55)씨가 주관했다. 김기설(55)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에 서울 마포구 신촌로터리에서 장례식을 치렀다. 김기설(55)씨는 이날 오후 11시30분에 연세대 세브란스

김기설(55)씨가 주관했다. 김기설(55)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에 서울 마포구 신촌로터리에서 장례식을 치렀다. 김기설(55)씨는 이날 오후 11시30분에 연세대 세브란스

**영결식장 앞에 큰 반**  
 김기설(55)씨의 영결식이 12일 오후 1시30분 서울 마포구 신촌로터리에서 치러졌다. 장례식은 김기설(55)씨가 주관했다. 김기설(55)씨는 이날 오후 11시30분에 연세대 세브란스

김기설(55)씨가 주관했다. 김기설(55)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에 서울 마포구 신촌로터리에서 장례식을 치렀다. 김기설(55)씨는 이날 오후 11시30분에 연세대 세브란스

한겨레 91.5.13





863. 9. 5. 13.

◇新村로터리 路祭

학생 재야인사들이 12일하오 金基高씨의 영결식을 마친 뒤 新村로터리에서 路祭를 지내고 있다. 【李錫哲기자】

金基高씨 어제安葬

재야인사들이 12일하오 金基高씨의 영결식을 마친 뒤 新村로터리에서 路祭를 지내고 있다. 【李錫哲기자】

김기고씨는 1914년 1월 1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법학부 법학과를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아 독립운동가들의 애국열사를 기리기 위하여 '독립운동가'라는 호칭을 붙여 주었다. 김기고씨는 1948년 1월 1일 '독립운동가'라는 호칭을 붙여 주었다. 김기고씨는 1948년 1월 1일 '독립운동가'라는 호칭을 붙여 주었다.

국민기자석

독자 여러분의 글·사진 등 원고엔 연락전화번호를 꼭 2 번호 150-102 서울 영등포구 메세부 ☎ 072-3322(대), 4

박흥 총장 '분신배후' 발언 책임져야 근거없이 말한뒤 침묵하는건 도리어긋나

지난 8일 죽음을 부추기는 배후의 검은 세력을 폭로하겠다는 용변에 찬 박흥 총장의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도 큰 충격이었다. 같은 시간에 검찰도 역시 배후를 가리겠다고 선포를 했다. 그 뒤 곳곳에서 '죽음앞에 조종·선동이 많이 되느냐, 혹은 그럴지도 모른다'는 논쟁이 자주 목격되었다. 젊은이들의 죽음앞에 당황하던 국민들에게 또다른 파문을 던진 것이다.

그러나 박흥 신부는 그 뒤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다. 우리는 검찰이 배후 운운하는 것은 중요치 않다고 본다. 그들은 직책상 그럴 수도 있고 또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흥 신부는 이와 다르다. 이 어려운 시국에 특히 우리 사회의 최고 지성을 대표하는 대학총장이요, 양심의 상징인 신부이며, 또 대외로 학내문제를 모범적으로 풀었다는 능력가로 자

타가 공인한 그가 성경에 손을 얹고 '양심선언'하듯 친 국민 앞에 서서 조국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던져 가장 치절하게 산화해간 젊은 넋들을 자살테러 리스트로 매도한 것이다. 우리 가족은 지난 5일 어린이날 텔레비전 특집프로 <명사들의 동요대회>에 나온 박 총장을 보았다. '명사로 나온 박 총장은 어린 시절 '싸움꾼이었음을 고백했다. 가난하고 힘없는 아이들을 때리는 무지막지한 힘센 아이들에게 도전하여 항복을 받을 때까지 싸웠다는 그의 어린시절을 들으며 나는 아들에게 "민환아, 저게 바로 의협심이라는 것이란다. 우리 민환이도 그럴 수 있지?"하고 물었다. 그 순간 박 총장은 우리 애들의 영웅이었다. 그가 설마 이 체제하에서 얻은 기득권에 연연하여 성경을 앞세워 젊은 넋들을 짓누르고 있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 지성과 양심과 의협심까지 '끝 고루 갖춘 박흥 총장은 어서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다시 서야 한다. 그리고 진실을 믿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가 말한 '죽음의 캠프리스트'는 애초에 없었던 사실을 고백해야 한다. 최영희 <서울시 성동구 자양동 220-73>











1991年5月19日 (日曜日) (22)

세가 되어 2억5천  
2억5천 정도는 85%에  
민중은행 재채를 위  
해나 되어야 할지  
-감 기 전-

누님  
우리 레일이  
결제의 주미  
-상호 기-

○ 김봉희씨가 분신현장에 남긴 유서상의 누나집에 보낸 카드에 적힌 글씨 필적.

# “金基高씨 유서 필적 자필과달라”

3월 9.5.19

## 대필 의혹 全民聯간부 신병확보나서

**검찰 수사결과 발표**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유서 필적과 달리...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분신 金基高씨 유서 필적과달라

검찰확인 3월 9.5.19

## 노트自筆검정결과 全民聯간부등 代筆여부 수사

**분신방조·배후도 조사**  
검찰은 이의 피의자인 민중은행 간부 김봉희(51)씨와 김기현(52)씨, 김기현(53)씨, 김기현(54)씨, 김기현(55)씨, 김기현(56)씨, 김기현(57)씨, 김기현(58)씨, 김기현(59)씨, 김기현(60)씨, 김기현(61)씨, 김기현(62)씨, 김기현(63)씨, 김기현(64)씨, 김기현(65)씨, 김기현(66)씨, 김기현(67)씨, 김기현(68)씨, 김기현(69)씨, 김기현(70)씨, 김기현(71)씨, 김기현(72)씨, 김기현(73)씨, 김기현(74)씨, 김기현(75)씨, 김기현(76)씨, 김기현(77)씨, 김기현(78)씨, 김기현(79)씨, 김기현(80)씨, 김기현(81)씨, 김기현(82)씨, 김기현(83)씨, 김기현(84)씨, 김기현(85)씨, 김기현(86)씨, 김기현(87)씨, 김기현(88)씨, 김기현(89)씨, 김기현(90)씨, 김기현(91)씨, 김기현(92)씨, 김기현(93)씨, 김기현(94)씨, 김기현(95)씨, 김기현(96)씨, 김기현(97)씨, 김기현(98)씨, 김기현(99)씨, 김기현(100)씨

## 분신 金基高씨 유서 본인 필적과 다르다

**검찰 9.5.19**  
분신 金基高씨 유서 필적과 달리...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본지가 모음에서 발표한 김기현(51)씨, 김기현(52)씨, 김기현(53)씨, 김기현(54)씨, 김기현(55)씨, 김기현(56)씨, 김기현(57)씨, 김기현(58)씨, 김기현(59)씨, 김기현(60)씨, 김기현(61)씨, 김기현(62)씨, 김기현(63)씨, 김기현(64)씨, 김기현(65)씨, 김기현(66)씨, 김기현(67)씨, 김기현(68)씨, 김기현(69)씨, 김기현(70)씨, 김기현(71)씨, 김기현(72)씨, 김기현(73)씨, 김기현(74)씨, 김기현(75)씨, 김기현(76)씨, 김기현(77)씨, 김기현(78)씨, 김기현(79)씨, 김기현(80)씨, 김기현(81)씨, 김기현(82)씨, 김기현(83)씨, 김기현(84)씨, 김기현(85)씨, 김기현(86)씨, 김기현(87)씨, 김기현(88)씨, 김기현(89)씨, 김기현(90)씨, 김기현(91)씨, 김기현(92)씨, 김기현(93)씨, 김기현(94)씨, 김기현(95)씨, 김기현(96)씨, 김기현(97)씨, 김기현(98)씨, 김기현(99)씨, 김기현(100)씨







